

겨자씨.

2019
SPRING
VOL.36

04
정성진 위임목사 새사역
크로스로드 CROSSROAD
십자가의 길 선교회

08
장터사회적협동조합
마르지 않는 천국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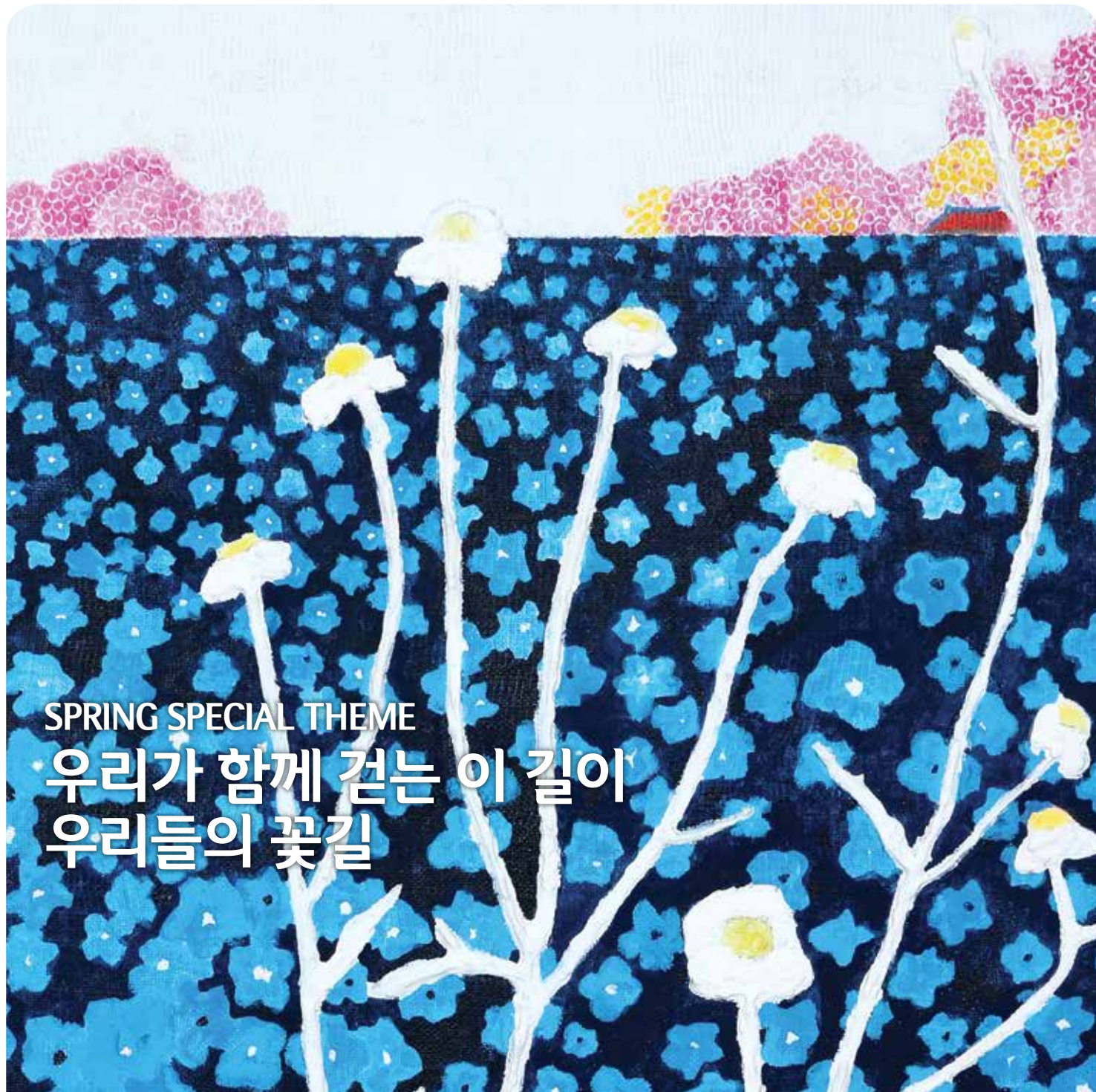
14
인터뷰 광승현 목사
깨끗하고,
뜨겁게 흘러가기

22
거룩한빛운정교회 담임,
유정상 목사 확정

33
2019 특별기획
한국에 온 여성 선교사②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국의 여성을 사랑한
스크랜턴대부인
이덕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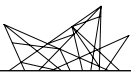
02
초대시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해

28
4월의 향기
한송이 꽃도 당신 뜻으로
허영자



SPRING SPECIAL THEME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우리들의 꽃길



김종해

-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등 수상
- 저서 『무인도를 위하여』, 『우리들의 우산』 등
- 문학세계사 대표

그대 앞에 봄이 있다

| 김종해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라
그런 날은 조용히 닳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 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자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사진 · 박해준



- 02 PROLOGUE
그대 앞에 봄이 있다
- 04 목양실 편지 정성진 위임목사
크로스로드 CROSSROAD
십자가의 길 선교회
-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충희
사월이면 생각나는 사람
- 07 2019 SPRING Special Theme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우리들의 꽃길
- 08 테마 포커스
장터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과 새터민의 행복한 일터 장터
마르지 않는 천국의 공간
- 14 테마 인터뷰 박승현 목사
깨끗하고, 뜨겁게 흘러가기
- 18 선교지 밀알 잠비아 이병은 선교사
無가 많은 나라 잠비아에서
- 20 희망나눔
한 끼 식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권창순 팀장
- 22 거룩한빛운정교회
거룩한빛운정교회 담임, 유정상 목사 확정
- 24 “목사님 환영합니다”
- 25 TODAY LOVE LETTER
어와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 28 4월의 향기
한 송이 꽃도 당신 뜻으로
- 30 아름다운 교회로의 여행
순천중앙교회
구한말 호남지역 교육과 의료 선교의 열매
- 32 성경 속 인물 초대
기독교 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테판(Stepan)
- 33 2019 봄 특별기획 한국에 온 여성 선교사②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국의 여성을 사랑한
스크랜턴 대부인(Mary F.B. Scranton,
1832~1909)
- 39 지혜의 창
하이데거가 말한 중요한 말
- 40 더불어 여는窓
교회학교,
새벽기도로 새 학기의 문을 활짝 열다
- 44 우리들의 꿈터
어린이영어예배부로 초대합니다
- 46 함께 읽고 싶은 글
나는 ‘궁정왕’
- 48 청년 광장
iMessage, ‘나’로 대화하기
- 50 내 삶의 멘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삶,
프랑스은혜교회 김은영 선교사님
- 51 문화산책
- 52 마음이 머무는 갤러리
이혜란 ‘흔적’
- 53 찻잔 속의 꽃향기
봄의 전령, 봄 햇살 담은 차, 목련꽃차
- 54 수필
황혼의 연가(戀歌)
- 56 강혜미 기자의 영화마을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
- 58 여행, 스토리를 담다
모차르트가 사랑했고, 프란츠 카프카가 평생
떠나지 못했던 프라하 그 빛을 걷다
- 60 도서리뷰
우리가 부르는 삶의 노래
- 61 BOOK AND BOOK
- 62 세금 상식





Crossroad

- 다윗의 물맷돌 사역
- 통일기도의 집 사역
- 비빌언덕 사역
- 선교사 지원과 목회 컨설팅 사역 등



후원문의 상담 031-929-3377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3-562019

크로스로드선교회

Crossroad

선교회 사역방향



새로운 꿈을 꾸며...

정성진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분도
누구인지 알기에
감사함으로
새로운 꿈을 꿈꿉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남겨진 마지막 부름을 위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
이제는 외롭지 않기를

우리 함께 꿈꾸는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축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다윗의 물맷돌 사역

- 젊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개척 학교
-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영성과 야성을 길러 '21세기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역

통일기도의 집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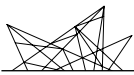
- 분단 칠십 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통일입니다.
- 도적과 같이 불시에 찾아 올 통일을 대비하여 기도의 집을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

비밀언덕 사역

-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고아들이 한 해에 천여 명이 됩니다.
-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신앙 안에서 멘토링하고 장학금과 자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기타 사역

- 선교사 지원과 목회 컨설팅 사역 등



사월이면 생각나는 사람

글 · 최충희(작가)



사진 · 박해준

사월,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녀는 죽었다가 다시 살
아난 사람이다. 제이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다. 자살 충동을 못 이겨 손목
을 그었다가 앰블런스로 실려 간 적도 있었고 대인기피증이 있어 약을 먹
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사람이었다. 죽고 싶은 충동에 괴롭힘
을 당하던 날 밤, 제이는 언젠가 병원에서 간호사가 적어 준 전화번호 하나
를 기억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메모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
호를 힘겹게 눌렀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절, 지금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이는 그렇게 내 곁으로 왔다. 작은 얼굴에 짧은 단발머리. 삼십대 중반
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건드리면 금방
부서져 버릴 것 같이 위태로워 보였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절망하게 만
들었을까? 무엇이 그녀의 인생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제이는 그
날 밤, 죽고 싶다고, 누가 옆에 없으면 일을 저지를 것 같아, 두렵고 무서워
서 찾아 왔노라고 가까스로 말문을 열었다. 나는 제이의 차가운 손을 꼭 붙
잡고 잘 왔다고 말해 주었다. 쓰러지듯 내게 기대어 울고 있는 그녀를 다독
이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제이를 찾아 와 주
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시라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제이는 나와 의 약속을 잘 지켜 주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힘들 때는
복음서가 CD를 열심히 들었다. 복음서가 가사가 모두 자신의 이야기인 것
만 같아 저절로 눈물이 난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성경 공부를 함께 했다.

제이의 기도는 어설프지만 진실했고, 절실했다. 제이는 성경 말씀을 달
게 받았다. 어느 날, 누가복음 속의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
던 제이의 안색이 갑자기 헬썹해졌다. 왜 그러냐고 묻는 내게 ‘나 같이 죄 많
은 사람도 용서 받을 수 있느냐?’고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 순간 제이에
게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전했다. 심각한 표정으
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제이는 놀랍게도 그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로 영접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제이에게 성령님께서 임재 하셨다! 제
이는 방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며 통곡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
달은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을 꼭 붙들었다. 그녀를 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죄책감과 자기 정죄의 사슬에 묶여 신
음하던 제이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제이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
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생각도 그렇고 언어도 달라졌다. 이혼
을 생각하고 있던 제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여인이 됐다. 그녀는 이듬
해 봄에 세례를 받았다.

제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
이다. 오래 전부터 제이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렇다! 하나님께
서는 제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회복
시키시고 다시 살리신 것이다! 사월! 죽었던 햇빛 숲이 다시 살아 푸른 생명
으로 넘실대는 부활의 계절! 사월이 오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곁에 미소를 짓고 서 있는 아름다운 제이의 환상을 본다

| 2019 SPRING SPECIAL THEME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우리들의 꽃길



일러스트 장예지



거룩한빛광성교회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과 새터민의 행복한 일터 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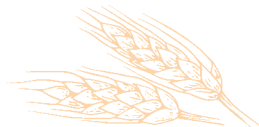




거룩한빛광성교회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과 새터민의 행복한 일터 장터

마르지 않는 천국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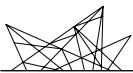
취재 · 전영의 / 사진 · 최영민 전도사, 김연철



올리브향기에 가면 미소가 아름다운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김영희 집사가 있다. 커피를 주문해놓고 시선은 김영희 바리스타를 따라다닌다. 커피를 받아들고 테이블로 와 앉은 후에도 자꾸만 눈길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바리스타의 얼굴에 번진 봄꽃 같은 미소 때문이다. 커피 한 모금에 입 안 가득 봄이 들어온다.

꾸오레 공방에서는 초콜릿색 앞치마를 두른 보라 씨가 빵과 쿠키를 포장한 후 그 위에 라벨을 붙이고 있다. 이곳 꾸오레는 보라 씨 같은 발달장애인들이 빵과 쿠키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일터이자 꿈터이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매장에서는 새터민 김영희 매니저가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들의 일터가 될 카페 풍경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정감 있는 사랑방이 되었다. 차 한 잔, 빵 하나에 녹아있는 그들의 행복한 시간. 아픔이 향기로 발현되기까지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동행자, 바로 장터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발달장애인들이 빵과 쿠키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공방 꾸오레. 장터를 만든 정성진 위임목사는 장터가 계속해서 더 많은 사회적배려자를 품을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장애인 and 새터민의 일자리, 장터

장애인의 '장', 새터민의 '터'자를 따서 이름을 짓고 그들을 품은 공동체, 장터! 장터는 장애인과 새터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3년 거룩한빛광성교회(정성진 위임목사)에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현재 농산물 유통 매장, 카페 올리브향기와 풍경, 빵과 쿠키를 만드는 꾸오레, 도시락·뷔페 사업부 요리조리 등 장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스물세 명의 직원 중 열여섯 명이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새터민 등의 사회적 배려자이다.

정성진 위임목사는 장터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교회는 퍼주다 망해도 성공한 것”이라며 장터가 장애인과 새터민, 취약 계층에게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천국의 굶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5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장터는 2018년에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위암 환자도 맘 편히 먹는 빵

꾸오레에서는 빵과 쿠키를 만들 때 우리밀만 사용하고, 어떤 화학 첨가물도 넣지 않는다. 또한 호밀, 통밀, 보릿가루, 견과류 등의 잡곡들이 듬뿍 들어

있어 암 환자, 당뇨 환자도 맘 놓고 즐겨도 될 만큼 순수하고 안전하다.

“저는 위암 수술을 한 환자예요. 빵에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느껴지고 아무리 먹어도 생목이 올라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건강한 빵을 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종종 환자들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는다는 이민정 팀장은 장터에서 취급 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아 유명 제과회사의 빵처럼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은 덜하지만 병으로 인하여 빵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시 먹을 수 있을 만큼 꾸오레의 빵은 건강합니다.”

꾸오레에서 만든 빵과 쿠키는 거룩한빛광성교회 내 올리브향기, 풍경, 농 산물 유통 매장에서 상시 만날 수 있고, 주일에는 지저스아트홀 앞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일산 농협 본점, 풍동점, 장항점, 송포 농협 대화점 등의 농협 로컬 매장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으며 인기가 좋다.

취업경쟁률 7:1 갈 곳 없는 장애인들

꾸오레에서 발달장애인 직원 두 명을 뽑는데 열네 명이 지원했다. 면접 차례를 기다리느라 꾸오레 공방 입구부터 긴 줄을 만든 발달장애인 지원자들



▲ 스물세 명의 장터 직원 중 열여섯 명이 장애인, 새터민, 취약계층이다. 장터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약자를 품고 그들과 상생하는 것에 그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정성진 위임목사는 말한다



1. 사회적 기업 육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장터. 오른쪽에 장터 김옥현 이사장이 표창장과 꽃다발을 들고 있다
2. 파주 특산물 장단콩이 함유되어 있는 장단콩빵 선물세트. 장터 사업장 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에서 '장단콩빵'을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다
3. 요리조리에서 판매하는 수제 도시락, 학교, 기업 및 공공기관의 행사, 여러 단체모임 등에서 인기가 많다

그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자리를 뜨지 못하는 부모들. 일자리에 대한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유독 1, 2급의 중증 장애인이 많고, 장애인 예배가 부흥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품기 위한 정성진 위임목사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 그들을 위한 교육과 돌봄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 청각장애인 예배가 있고 발달장애인 예배가 따로 있지요. 장애인을 위한 여러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예배를 어린이부, 청소년부, 장년부 세 개의 부서로 나누었고 성인이 된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장터를 만든 거지요. 지금도 장애인 예배부를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요.”

이외에도 저소득, 저신용, 사업실패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2천만 원씩 지금까지 4천 4백여 명에게 지활지원금을 대출을 해준 해피뱅크, 새터민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새꿈터,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일산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가정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귀국자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규학교진학을 도와주는 누리다문화센터 또한 ‘섬기는 교회’를 지향해 온 정성진 위임목사의 목회비전에서 비롯되었다.

장터에서 곧 직업재활센터를 오픈한다. 직업재활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장애 정도에 따라 자판기에 캔 넣기, 빵과 쿠키 포장하기 등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돕는다. 또한, 새터민과 다문화 여성에게도 제과 제빵,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한 사회적 자립을 지원할 것이다.

먹어 주고 써 주는 ‘착한 소비’

장터의 최고 목표는 장애인과 새터민의 고용 창출이다. 농산물 유통 매장, 꾸오레, 올리브향기와 풍경, 도시락·뷔페 사업부 요리조리 등 장터 사업장에서 생산, 유통하는 물건들이 잘 팔리면 장터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과 새터민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 먹어 주고 써 주며 뜻을 함께 하는 ‘착한 소비’가 절실하다.

정성진 위임목사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장터를 향한 교인들의 배려와 사랑을 부탁한다.

“장애인과 새터민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터는 설립 이후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지만 운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지능은 여덟 살 아이 정도의 지능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지요. 그들과 더불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돌보는데 그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혹여 적자 상태가 장기화 되더라도 장터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교인들이 인식하고 함께 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터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는 4인 인터뷰

커피 한 잔, 빵 하나에 녹아있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방금 내린 커피 위에 하얀 우유로 하트 라떼 아트를 그리는 김영희 바리스타
 ▼ 김영희 바리스타와 수화통역을 한 최연희 권사

한 잔의 커피
한 점의 명작이 되다

카페 1호 올리브향기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김영희 집사

“한번은 커피를 주문하는 손님의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였어요. 저는 더 정성을 들여 커피 위에 하트 라떼 아트를 했어요. 커피 위에 새하얀 우유로 나뭇잎, 하트, 눈사람, 별 모양 등을 그려 넣는 것을 라떼 아트라고 해요. 하트 라떼 아트를 보자 ‘이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라며 그 분이 활짝 웃는 거예요. ‘아! 내가 이분에게 행복을 드렸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올리브향기의 미소천사 김영희 바리스타. 김영희 바리스타의 손을 거치는 동안 커피 한 잔은 ‘위로와 사랑을 실은 한 점의 명작’이 된다.

김영희 바리스타는 청각장애로 인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올리브향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속에 중등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지금은 서대문농인복지관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농인들 중에는 무학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화를 하지 못했음에도 온 몸짓으로 농인들을 가르쳤던 김구 선생님처럼 저도 대학교에서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한 후 문맹 농인들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작은 천국

카페 2호 풍경 자원봉사자팀장 민미숙 권사

열두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맛과 정감을 품은 사랑방이 된 카페 풍경. 이곳은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 카페이다. 곧 직업재활센터에서 훈련을 받은 발달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여성들이 바리스타로 근무하게 된다.

풍경의 자원봉사자팀장 민미숙 권사는 풍경이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풍경에 들어서면 민미숙 권사가 직접 써 입구에 붙인 ‘사랑으로 화목을 POP 글자가 한눈에 들어온다. 장애인 직원과 비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 갈 작은 천국, 카페 풍경. 커피 한 잔 속에 실려 올 그 천국의 향기가 기대된다.



▲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카페 풍경의 자원봉사자들

▶ 봉사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풍경 봉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민미숙 권사

✔ 장애아 둘을 키우면서도 행복을 알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발달장애인 윤보라 씨
어머니 이준희 집사

✔ 꾸오레에서 빵과 쿠키를 포장하는
발달장애인 윤보라 씨



왜 둘씩이나 장애아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빵과 쿠키 공방 꾸오레
윤보라(28, 발달장애) 씨의 어머니 이준희 집사

꾸오레로 출근하는 딸 보라 씨를 바라보는 어머니 이준희 집사는 가끔씩 이것이 꿈인가 싶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보라 씨가 꾸오레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를 한 지 어느덧 5년. 심장병을 안고 태어나 특하면 패혈증에 심부전을 앓는 서른 살의 아들과 발달장애인 딸 보라 씨. 이준희 집사는 우울과 절망에 짓눌려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어둠의 터널이 어느덧 끝이 나고,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은 어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두 아이의 몸짓과 음성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장애아를 기르면서 우리 가족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꾸오레에서 보라 씨는 빵과 쿠키를 포장하고 설거지를 한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십일조를 드리고 한 달에 오십만 원씩 저금한다.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

“왜 저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둘씩이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언제나 제 작은 소리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린말이 올려놓는 그 식탁에 부모님도 함께할 수 있기를

농산물 유통 매장 새터민 이영희 매니저

농산물 유통 매장의 이영희 매니저는 2014년 5월에 한국으로 온 새터민이다. 한국 땅을 밟기까지 중국, 라오스, 태국의 어두운 변방 길을 하루 열 시간씩 걸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니까 좋아요. 남편과 아들, 딸은 제가 한국에 온 1년 뒤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북한에 계세요.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농산물 직거래 유통 매장에는 농촌에서 갓 올라온 신선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꾸오레에서 만든 빵과 쿠키, 요리조리에서 만든 밀반찬, 김치 등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한다. 매장 운영 시간은 화요일에서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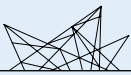
“유정란, 과일, 밀반찬 등이 잘 팔려요. 물건들이 잘 팔려 새터민과 장애인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5학년 딸, 3학년 아들의 밥상에 계린말이를 올려 주면서 이영희 매니저는 이 식탁에 부모님이 함께 앉을 날을 고대한다.



« 1층에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매장,
2층에는 카페 풍경이 있는 정터 사업장
✔ 농산물 유통 매장의 새터민 이영희
매니저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2대 담임 박승현 목사

교회와 목장의 날개가 함께 펼쳐지는 교회를 꿈꾸며 깨끗하고, 뜨겁게 흘러가기

취재 · 전영의 / 사진 · 김연철



2대 담임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시작에는 늘 설렘과 두려움이 동반되듯 박승현 목사의 2019년도 그렇다. 그래서 더 가슴이 뗌다. 주일 설교 외에도 성경 읽기 프로그램 '바이블 하이킹'과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으로 깨끗하고, 뜨겁게 흘러가길 소망한다. 꽃잎이 날리는 4월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쁜 봄 길을 행진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박승현 목사. 더불어 걷는 이 길 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쉬를 얻고, 수많은 사랑의 이정표가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한다.

▲ 박승현 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부목사 시절 익힌 알파, 일대일양육, 선한목자학교, 섬김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총일교회에 적극 도입하여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 시키고, 문화교실과 색소폰 선교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스포츠 선교회를 조직하여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교회 안으로 끌었다

세워가는 기쁨이 있었던 충일교회

“친정집에 온 마음입니다. 부목사 시절 교구 사역과 위원회 사역을 하던 거룩한빛광성교회의 담임목사로 오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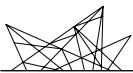
지난 2013년 12월 충주 충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떠났던 박승현 목사는 충일교회에서의 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2018년 12월 거룩한빛광성교회 2대 담임으로 돌아왔다.

어른 아이 합쳐서 교인 600명 정도였던 충일교회를 5년 사이 교인 1천 1백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킨 박승현 목사는 충일교회는 ‘세워가는 즐거움과 부흥의 기쁨’을 알게 한 소중한 사역지였다고 한다. 그 뜨거움을 들고 다시 선 거룩한빛광성교회. 설렘만큼 두려움도 공존한다. 그 마음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려놓는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크리스천은 세상 속의 창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박승현 담임목사는 말한다



영혼이 건강해지는 '바이블 하이킹'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곽승현 목사가 기록한빛광성교회 성도들과 가장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성경 읽기’이다. 성도들이 ‘성경을 즐기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곽승현 목사는 매주 수요일 저녁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 ‘바이블 하이킹’을 진행하고 있다.

“성경을 하나의 산이라고 할 때 산을 오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골짜기와 웅덩이도 있지요. 성도들이 그런 산의 다양한 지형들을 잘 탈 수 있도록 안내하여 통독이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바이블 하이킹입니다. 바이블 하이킹을 하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주님과의 사귄도 깊어집니다.”

바이블 하이킹의 빼놓을 수 없는 묘미는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곽승현 목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민수기를 함께 펼쳐게 한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이 민수기 10장 11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결 고리를 짚어가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 인물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듯 그 시대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들과 함께 시내 광야를 걷기도 하고, 바란 광야에서 멈춘 구름기둥을 따라 또 걸음을 멈춰서기도 한다. 이것이 바이블 하이킹의 매력이고, 참여하고 있는 45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일 것이다.

곽승현 목사는 총일교회 5년 사역 동안 바이블 하이킹을 8회 진행하였다. 또 ‘나인만큼 성경 읽고 천국가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일흔여섯 번 성경을 통독한 76세의 장로님께 감사패를 드린 것이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그동안 성경 1독을 완성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 성경 1독의 대업을 달성하고, 여기서 탄력을 받으면 2독, 3독에 도전하는 ‘성경 읽기’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교회 사역의 피를 돌게 하는 금요기도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금요일 밤이 뜨겁다. 금요기도회 때문이다. 박승현 목사가 인도하면서 매주 1천8백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금요기도회의 불을 지핀다.

“저는 목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라는 철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목숨 걸고 합니다. 금요기도회는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울 때 그것이 비로소 교회 모든 사역으로 피가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요.’”

박승현 목사는 총일교회 부임 당시 이십여 명 참석하고 있던 금요기도회를 ‘불바람 기도회’로 명명하고 백 팔십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예배로 이끈 감동이 있다. 총일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금요기도회가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담고 밝히는 영혼의 등대가 되고, 그 열기가 목장과 각 소그룹으로 시원하게 뿜어나가길 바란다 한다.

교회는 또 하나의 커다란 목장

“우리 교회 ‘양날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양 날개이고, 또 하나의 양 날개는 ‘대그룹(교회)의 날개와 소그룹(목장)의 날개’입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가 은혜롭다고 하더라도 목장의 날개가 펼쳐지지 않으면 비뚤어지고 추락하게 되지요. 대그룹의 날개가 펼쳐지는 것과 같이 소그룹의 날개도 강력하게 힘을 받아서 함께 펼쳐져야 교회가 건 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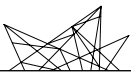
박승현 목사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교회 안에 없으면 아무리 신앙 생활을 해도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갈증을 풀어주는 곳이 목장이라며 목장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며 영적 체험을 하면 신앙의 키가 자라고, 그런 목장들이 활성화 될 때 교회는 꿈과 행복을 담은 또 하나의 커다란 목장이 된다고 한다.

교회와 목장의 날개가 함께 비상하는 교회를 꿈꾸는 박승현 목사는 자신의 소임은 ‘어머니 같은 역할’이라고 한다.

“위임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위임목사님이 아버지라면 저는 어머니라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목양하는 것이 어머니인 제가 할 일입니다. 부지런하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1. 박승현 목사는 성경은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려면 시간, 공간, 문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한다
2. 3월 13일 창세기를 출발하여 6월 29일 욥기 경기를 끝으로 구약통독을 마치고 올 하반기에는 신약바ible 하이킹이 진행될 예정이다
3. 450여 명이 참가한 바ible 하이킹 첫 번째 시간, 정사에서 만나자는 박승현 목사의 인사와 함께 Day 1 출발



無가 많은 나라 잠비아에서

글 · 이병은 선교사(잠비아)

안녕하세요. 이병은, 노영순, 이한나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잠비아는 물, 집, 식량, 교육, 병원,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키워서 올바른 리더를 배출하면 이 나라가 조금씩이나마 발전이 될 것 같아, 교육 선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비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리더자 양성'입니다. 현재 드림 몬테소리유치원과 찰롬몬테소리초등학교는 국제학교로 운영하여 인정받는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빈민촌과 부시 마을에 교회와 학교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귀한 물과 영적 성장, 자녀들의 공부에 대한 도움을 주다 보니 각 교회와 학교들이 꾸준히 변화가고 있습니다.

잠비아에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 총계 차보다교회



프로미스학교



현재 교회 모습



쉐카이나교회, 줌마학교

가장 처음으로 사역한 빈민촌 학교입니다. 7년 동안 쉐카이나교회에서 운영하다가 교회 형편상 학교 운영을 중단하여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교회 안에서 1백이십여 명에게 성경과 일반 공부를 가르쳐 열두 명이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에 갔습니다.

뉴라이프교회와 프로미스학교

세 번째 교회와 학교입니다. 이곳은 도시 빈민촌 학교입니다. 정부가 새 주거지로 정해서 마을이 갖 형성될 때, 우물을 파주고 교회와 학교를 지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자립하여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사 일곱 명, 학생 수 1백이십여 명.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가서 모범적인 선교 성공 케이스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총계 시골에 있는 차보다교회, 학교

두 번째로 교회와 학교를 짓고 사역을 한 곳입니다. 이곳은 현재까지 후원을 하면서 1백오십여 명의 학생들에게 매일 급식을 하고, 교회와 학교를 지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한두 시간 넘게 걸어서 학교에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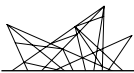
아머교회, 학교

4년 전부터 우물을 먼저 세워주고, 작년에 교회와 학교를 함께 지었습니다. 현재 학생 칠십여 명, 교사 네 명으로 학교를 시작하여 첫 걸음을 뚫었습니다. 주일 학교 학생은 220명이고, 역시 이 교회도 마을 주민들에게 물과 학교를 무료로 공급하여 교회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 선교란 10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희망이 제로인 잠비아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고, 그 새싹들이 자라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이비전을 공유해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 식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권창순 팀장

취재 · 김용기 / 사진 · 박승언, 김연철



«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하는 권창순 팀장

한 달 동안 마음의 두근거림

“마음이 두근거리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일지 모르니 순종할 준비를 하세요. 저도 그 두근거림이 봉사의 시작이었어요.”

거룩한빛운정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있는 권창순 팀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았다.

“벌써 7년 전의 일이에요. 권사 피택자가 되어 정성진 위임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는데 꼭 저에게 하는 말처럼 가슴 속을 파고들었어요.”

그 당시 권 집사는 치킨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처지라 ‘나를 대신해 누군가 봉사할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마음의 두근거림은 계속되었고, 금방이라도 자신을 찾는 목사님의 전화벨이 울릴 듯 해서 조금씩만 더해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평안함’

드디어 교육을 마무리하고 임직을 받는 주일을 앞둔 토요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정리하는 늦은 저녁, 예사롭지 않은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벨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으며 나를 찾는 목사님의 전화라는 느낌이 확 왔죠. 전화를 받아보니 광성교회 식당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봉사를 시작한 권 팀장은 거룩한빛광성교회 식당에서만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봉사했다.

“가정사를 내려놓고 어렵게 간 봉사의 자리여서 최선을 다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저는 교회 식당에서 진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혈질의 성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변화했어요.”

또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두근거림’

지난해 3월 그 동안의 식당 봉사를 내려놓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권 팀장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두근거림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계기는 11월에 열린 다니엘 기도회였다.

“2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며 간증을 들으며 도전을 받는 중에 또 다시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됐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려나 봐요”

기대를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21일 째 예배에 참석한 날, 교회 로비

에서 만난 장로님의 한 마디가 권 팀장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운정교회에 식당 봉사팀장이 없어 교회 창립기념 주일 예배가 2주 전인데 예배 때 손님들이 밥을 굶게 생겼다”는 하소연을 하셨다.

예배에 참석한 내내 장로님의 말씀은 권 팀장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하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들었다.

육의 양식 이어 영의 양식도 나누고 싶어

5개월째 거룩한빛운정교회에서 식당 봉사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권 권사는 이십여 명이나 되는 봉사 팀을 이끌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맛있는 한 끼의 밥을 먹이는데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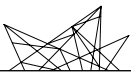
“거룩한빛광성교회 식당에서는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려 메뉴가 정해져 있었지만 숫자가 적은 운정교회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싶어요.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한 끼의 밥으로 영육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같이 일할 분들이 없어 남편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남자 봉사자만 여덟 명”이라는 권 팀장은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세우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고 말했다.

교회의 식당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두 번이나 누린 권 팀장은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먹이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꿈을 꾸고 있다.



▲ 1. 여전도회 회원들이 식당 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2. 열심히 설거지 중인 남성 집사님들 3. 주일 교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운정교회 식당 봉사팀



거룩한빛운정교회 담임, 유정상 목사 확정

취재 · 전영의 / 사진 · 김연철



☞ 예수님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고, 회복이 일어난다며 주님을 향한 시선을 세상 어느 것에도 결코 빼앗기지 말자는 유정상 목사

거룩한빛운정교회 담임으로 유정상 목사가 확정되었다. 지난 1월부터 담임목사 청빙을 진행해 온 거룩한빛운정교회는 3월 31일 1~3부 예배 시 공동의회를 열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인준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투표 인수 1,304명 중 찬성 1,156명, 반대 107명, 무효 3표, 기권 3명으로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음으로써 유정상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을 확정했다.

청빙 절차를 진행해 온 거룩한빛운정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거룩한빛운정교회 선임목사인 유

정상 목사와 3명의 외부 후보, 총 4명의 담임목사 후보자 가운데 거룩한빛운정교회 담임목사에 부합되는 리더십과 인품, 설교 등을 고려하여 유정상 목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하였고, 1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유정상 목사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한 표결을 비밀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표를 획득함으로써 유정상 목사는 거룩한빛운정교회 담임목사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고, 3월 31일 공동의회에서 찬성 88.7%로 담임목사 청빙 인준 절차를 마쳤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성경학을 전공한 유정상 목사는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으며, 2003년 한남제일교회 교육전도사, 영세교회 전임전도사, 수지영락교회 부목사, LA 나성영락교회 성경 강사, 미국 벨리한인 커뮤니티교회 교육목사, 미국 새소망장로교회 부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경험이 있고, 2018년 12월부터는 거룩한빛운정교회 선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유정상 목사 미니 인터뷰



거룩한빛운정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빛운정교회의 비전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는 거룩한빛광성교회의 균형 잡힌 구원과 섬김의 비전을 계승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통과 나눔을 통해 지역과 세대, 더 나아가 한국 교회에 기여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한 마음으로 품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정성진 위임목사님의 '아사교회생(我死教會生)' 정신은 목회자가 가정에서 자라 온 제게 뻗속까지 울리는 철학입니다. 그 모습을 닮기 원하고 그렇게 선종하기를 원합니다.

담임목사로서의 정식 업무는 12월 1일에 시작되지요.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광성교회 23년 동안의 건강한 교회 사역과 운영을 기반으로, 운정교회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을 따라 새로운 팀 목회 운영방향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팀 사역을 위해 현재 섬기고 있는 모든 교역자가 함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회 방향과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거룩한빛운정교회는 지금

“목사님 환영합니다”

글 · 함재희 권사(중보위원회 위원장)

거룩한빛운정교회를 세워 가실 담임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거룩한빛운정교회는 전 성도가 새 신랑을 맞이하는 새 신부의 마음으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릴레이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깨끗하고 정결한 새 부대를 준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고, 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선한 목자를 기다리는 양떼의 마음이었습니다. 운정 성도들의 얼굴이 해같이 밝습니다.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힘든 내색 없이, 기쁨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왜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기도릴레이를 진행하면서도, 무언가를 구하고, 요청하고, 염려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아닌,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고, 평온이 느껴지는 기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곰곰이 바라보는 가운데 답을 얻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룩한빛운정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진흙 바닥이었을 때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릴레이기도가 이어졌던 컨테이너 속에서, 철근이 하나, 둘 세워지던 공사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의 새 성전까지 거룩한빛운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빛운정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를 확실히 체험했기에 확실한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정말 세밀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목사님 청빙 과정 또한 가장 선한 계획으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 가운데 신부를 진심을 다해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품은 신랑 같은 목사님, 양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히 살피고 푸른 초장과 물가로 친히 돌보며 이끌어 줄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은 선한 목자, 입술로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실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 없이 일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는 중보기도팀



✧ 거룩한빛운정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를 주관한 중보기도위원회. 위원회 별 기도 시간표와 금식 릴레이 기도 출석부가 기도실 앞에 놓여 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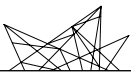
어와나

글 · 송정섭 안수집사(거룩한빛운정교회)



⌘ 광성 어와나 그랑프리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경기 지역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



즐거움 게임 시간



매주 진행하는 어와나 게임 시간



매주 성취한 단계에 따라 시상하는 어와나 시상 시간

즐거움 성경 암송

2019년 2월 10일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거룩한 빛운정교회 어와나 첫 학기, 첫 제자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어와나 친구들이 어와나 시간을 좋아하고 성경 암송을 즐겨워하는 모습을 보아왔기에 운정교회에서도 많은 유치부, 초등부 부모님과 아이들이 어와나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득이 추첨을 통해 클럽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KJ Version, 1950)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첫 글자를 따온 이름입니다. 말씀 암송과 게임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원과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부모님의 구원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교사의 훈련을 목표로 하기에 아이들 뿐 아니라 봉사하는 부모님과 교사들에게도 큰 도

움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시작했으나 어와나 과정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 즐거웠기에 7년째 교사로 섬길 수 있었던 듯합니다.

어와나의 최대 장점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 할 수 있는 성경 암송을 게임과 시상을 통하여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와나 프로그램

어와나는 게임 시간, 핸드북 시간(말씀 암송), 대그룹 시간(예배와 시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시간은 아이들이 게임을 통하여 즐겁게 놀며 규칙을 지키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핸드북 시간은 함께 모여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우지요. 대그룹 시간은 예배와 함께 어와나의 큰 매력 포인트인 유니폼에 부착되는 시상품들을 시상하여 아이들이 더 열심히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경기 지역 교회들이 참가하는 어와나 올림픽



말씀 암송 시간에 열심히 말씀 암송하는 중



곽승현 담임목사가 어와나 성경퀴즈 우승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CBS 성경 암송 대회

어와나 과정은 나이에 따라 구분되는데 4세 아이들의 퍼글단과 5-6세 아이들의 커비단은 '경외'를 주제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암송합니다. 7세-초등 2학년까지의 불티단은 '지혜'를 주제로 하나님의 진리를, 초등 3-6학년까지의 티앤티는 '은혜'를 주제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중심으로 암송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후 중등부 과정인 트랙과 고등부 과정인 저너까지 있으나 아직 우리 교회는 불티단과 티앤티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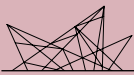
어와나의 매력

어와나는 교회 내의 활동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여러 이벤트가 있어 아이들이 더욱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어와나 올림픽(매년 5월)과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매년 1월), 어와나 그랑프리, 티앤티 캠프(매년 여름 국내 영어캠프)입니다. 어와나 올림픽은 매주 게임 시간을 통해 배운 게임을 다른 교회 친구들과 모여 경쟁하고 즐기는 대회로 금, 은, 동 메달이 걸려 있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행사입니다. 어와나 성경 퀴

즈 대회는 핸드북 시간을 통해 암송한 말씀을 테스트 받고 대결하는 행사입니다. 어와나 그랑프리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평소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빠들이 아이들과 너무 자동차를 깎고 칠하고 장식하며 즐겁게 준비하여 어와나 그랑프리 경기장을 누가 더 빨리 달리는가 경쟁하는 대회입니다. 부모님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행사이지요. 티앤티 캠프는 매년 여름 개최되는 행사로 미국 어와나 교사와 친구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함께 하는 영어 캠프입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게임과 암송을 하고, 다 같이 예배하며 영어를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교사 컨퍼런스(매년 3월경), 영성 수련회(매년 10월), 각종 훈련 과정들이 있어 신앙의 훈련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와나 클럽원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교사들까지 매주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와나 시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에 모두들 어와나의 매력에 빠지는 듯합니다.



한송이꽃도 당신 뜻으로

글 · 허영재(시인)



사진 · 박해준

저토록 조그맣고 연약한 풀꽃을 피운 손길의 포효하는 노도와 아아한 산봉우리를 빚었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창조주의 그 무궁무진한 창의와 진지함에 새삼 경악할 때 우리는 신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이 될 것이다.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을 볼 때, 그 연약한 꽃잎이며, 길고 가는 줄기, 그 줄기에 보소송하니 돋은 솟털, 그리고 거기에 층층이 겹친 초록 이파리와 어두운 땅속을 파고들어 영양과 수분을 빨아올리는 실뿌리, 그 위에 뿌려 둔 매혹적인 향기들에서 우리는 신비롭고도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

한 가지도 우연히 된 것은 아닌 양 섬세한 배려와 깊은 뜻을 새긴 듯한 그 빛깔, 그 향기, 그 모습에 우리가 재삼 감탄할 때, 우리는 이미 신의 은총을 찬미하는 것이며 그 전능과 자비로움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우람한 산악, 그 푸른 자락 아래 뭇 날짐승과 길짐승을 포용하고 깊은 골짜기와 갖가지 수목들을 안아기르며 의연히 솟아오른 산악 앞에 웃기를 여윌 때 우리는 곧 신의 위력을 공경하고 경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넓고 깊은 대양, 끝없는 암흑과 침묵을 그 밑에 깔고도 푸른 파도와 흰 물거품과 온갖 크고 작은 물고기, 산호와 진주와 바닷말의 보배를 간직한 대양, 때로는 노호하며 때로는 고요히 잠드는 저 대양의 몸짓에 우리들이 매료당하고 마음 설렌다면 우리는 신의 창조의 뜻에 공감하고 일체감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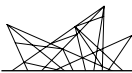
또한 저토록 조그맣고 연약한 풀꽃을 피운 손길의 포효하는 노도와 아아한 산봉우리를 빚었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창조주의 그 무궁무진한 창의와 진지함에 새삼 경악할 때 우리는 신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이 될 것이다.

우주에 가득한 혼돈과 질서, 그 모든 것이 저 너름의 존재 의의와 값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커다란 감동으로 가슴 두근거릴 것이며 이러한 감동과 흥분과 인식은 우리를 한없이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이니 이는 곧 거룩한 종교심의 발로가 될 것이다.

생활인의 기도는 그 생활과 직결된다. 추상 관념이 아닌 생활 주변의 모든 사물, 생활 속의 모든 사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구체적이며 사실적 체험이다.

오늘 우리들이 아름다운 생명을 구가하고 하루의 삶에서 찾아진 조그만 행복감으로 무한한 위로를 삼는다면, 또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온전히 자기를 몰두시키며 집중시켰을 때 그것은 정녕 뜨거운 기도요 경건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생활, 개인의 생명의 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무릇 모든 이웃에 확대시키며 삼라만상에 두루 적용시킬 때 그것은 사랑의 종교가 되어 우리의 영혼 속을 도도히 관류할 것이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이웃이 건재함을 감사하고 난관을 헤쳐 나갈 용기 있음을 감사하고 일상의 모험을 감내할 지혜를 갖게 되길 화구하고 불의에 물들지 않을 의지를 갖추길 희망하고 내 이웃이 나와 더불어 함께 행복하기를 갈구해 마지않는 마음, 이 소박한 바람들이야말로 평범한 생활인이 그 생활 속에서 드리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한다.



구한말 호남 지역
교육과 의료 선교의 열매

순천중앙교회

글/사진 · 김용기

서양 의술에서 싹튼 복음의 씨앗

“600리 밖에서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전도 소책자를 받아서 흥미롭게 읽을 뿐만 아니라 이를 썬 지난 후 다시 와서 다른 종류의 소책자를 달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1898년 11월 전남 목포에 도착한 서양 의사이자 목사인 오웬(Clement C. Owen, 1867-1909)이 1899년 1월 20일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서양 의술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던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활동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전도 모습이다. 호남 지역의 선교는 남부 지방 최대 항구 도시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유입이 빨랐던 목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1907년 순천에서 가장 먼저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순천중앙교회도 목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선교가 시초가 됐다.



▲ 순천중앙교회 전경. 순천중앙교회는 지난 2006년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본관을 개축해 입당 예배를 드렸다



▲ 지난 2007년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교회 발전상을 담은 타임캡슐이 들어있는 '100주년 기념 조형물'을 만들어 봉헌했다

감옥 선교도 마다 않은 조상학 조사

오웬 선교사로부터 기독교 교리를 접하고 개종한 초기 기독교인 가운데 한 사람인 조상학은 신앙 열정이 대단하여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선교에 앞장섰다. 그는 구한말 감옥에까지 선교의 손길을 펼쳤다.

순천 지역 무만동에 살고 있던 김일현은 법정 송사에 휘말려 광주 감옥에 구금되었다. 조상학은 그에게 밤낮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여 결국 믿기로 결단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 동서에게 믿음을 전파하였으나 믿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신랄하게 비난했다. 조상학은 이 소식을 듣고 순천을 방문하여 3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오웬 선교사의 동행 조사로 활동하던 조상학에게 전도를 받은 김일현은 후에 장로가 되었고, 그의 처남 정태인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순천 지방에서 배출한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김일현, 정태인과 그 가족이 믿으며 1905년 보성군에 무만리교회를 설립하는데 기여한 조상학은 전도 범위를 넓혀 순천의 개종자들이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도 기여했다.

순천중앙교회 연혁에 따르면 1907년 별교에 사는 조상학의 전도로 최정희, 김억평, 최시집, 김창수가 믿고 금곡동 향교 뒤 샘 부근 양사재를 빌려 예배를 드림으로 순천 지방의 첫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남자다섯 명, 여자다섯 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린 순천중앙교회는 1908년 예배 처소로 사용하던 양사재에 일본군이 주둔하며 예배 장소를 빼앗겨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해야 했다. 당시 삼십여 명으로 규모가 커진 교회는 서문 밖에 'ㄴ' 자 형태의 5칸짜리 초가를 매입해 첫 교회를 마련했다.

3.1운동 당시 성인 200명 교회로 성장

초대 교회의 모습을 갖춘 순천중앙교회는 당시 광주선교부를 맡고 있던 오웬 선교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변화를 맞이한다. 미국 남장로교 소속 한국 선교회는 당시 22개의 교회가 설립돼 있었던 순천 지역을 광주선교부에서 분리해 순천선교부를 신설하기로 결정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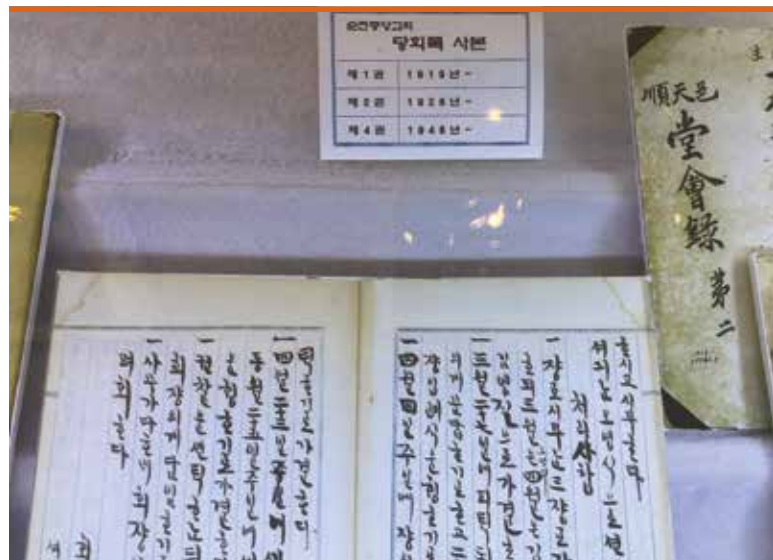
오웬 선교사에 이어 호남 선교를 이끌던 프레스톤(John F. Preston : 변요한, 1875-1975) 선교사는 순천 지역을 답사하고 선교사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10에이커의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음으로써 순천이 호남 지역 선교의 거점 지역으로 변화하는 기초를 놓았다.

순천선교부는 미국에서 보내오는 선교 자금을 활용해 선교 학교인 매산학교를 설립해 남녀 학생에게 신문물을 교육하고, 안력산선교병원을 지어 주민을 치료하며 교육과 치료를 통한 선교 사업을 이끌었다.

순천 지역의 선교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학교와 병원에서 활동하는 인텔리 계층이 모여 들며 순천중앙교회도 빠르게 성장했다. 1912년에는 교회 면적이 두 배로 커졌고, 제4대 교역자로 이기풍 목사가 시무하던 1919년에는 성인만 2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우뚝 섰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 오후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본당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다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순천중앙교회는 오래된 당회록 등 사료를 모아 작은 교회 역사관을 꾸며 놓았다

‘예수님 따르기’로 지역 공동체 섬겨

올해로 교회 설립 112년을 맞은 순천중앙교회는 선교사의 소명을 이어받아 일본·필리핀·태국·베트남·남아공·아르헨티나에 선교사를 파송해 해외 선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산 중·고등학교와 순천대 등 기독교 계통 학교에 대한 학원 선교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홍인식 담임목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는 교회”라며 “국내외 선교와 학원, 기독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랑과 만남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 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Stepan

글 · 김은숙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

스데반은 각 회당을 돌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했다. 그의 깊은 성경 지식과 놀라운 지혜의 복음에 열등 의식을 느끼고 쥘림을 받은 유대인들은 회당마다 큰 변론이 일어났고, 그 결과 스데반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다. 여러 지파가 회당에 모여 그와 논쟁함에, 그가 오직 지혜와 성령에만 의존하여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함을 깨닫고 그를 시기하고 제거하기 위해 골몰한다. 마침내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부추겨서 여론을 조성하여 그를 공회에 고소하기에 이른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왜곡하여 그가 '모세가 준 율법을 함부로 고침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모독죄를 씌웠다(행 6:9-14).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공회에서 진리의 말씀

을 전할 때 마음에 쥘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소리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작 마음에 쥘리는 영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헛되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열매를 맺고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다. 첫째로 그의 순교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들이 각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다. 둘째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어 교회 역사상 위대한 사도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 지역에 선포하였으니 이는 실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신 것을 보았다(행 7:55-56). 이때 그의 얼굴은 마

치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고 한다.

또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59-60)'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상황을 읽다보면 어떤 기시감(데자뷰)이 떠오른다.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마 26:59),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마 26:65)

이제 시순절 기간이다.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는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간 작은 예수이신 참 순교자 스데반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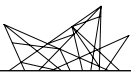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국의 여성을 사랑한

스크랜턴 대부인

Mary F.B. Scranton, 1832~1909

글 · 이덕주 명예교수(감신대학교)





글 · 이덕주 명예교수(감신대학교)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국의 여성을 사랑한

스크랜턴 대부인

Mary F.B. Scranton, 1832~1909



⌘ 한국 여성의 교육과 선교의 기초를 놓은 스크랜턴 대부인



⌘ 스크랜턴

의술과 복음, 여성 교육과 선교의 기초를 놓다

한국감리교회 역사상 여성의 교육과 선교를 위해 가장 헌신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스크랜턴 대부인일 것이다. 그녀는 1885년 아들인 스크랜턴(William Benton Scranton, 시란돈 施蘭敦, 1856~1922) 의료 선교사와 함께 내한하여 1909년 별세하기까지 여성의 교육과 선교의 기초를 놓은 분이기도 하다.

스크랜턴 대부인과 관련된 자료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어떤 마음으로 선교에 임했기에 이도록 헌신적일 수 있을까?'

한국 여성을 자녀처럼

1898년 작성된 선교 보고서에는 그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가 다녀 온 지방은 거의 모두 이전부터 사역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 부인들은 전에 받아들이고 빛과 진리를 실낱 같이 붙들고 있었는데 이해하는 수준이 어린아이와 비슷하니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읽을 수 있는 부인은 아주 적으며(남녀구별-인용자) 시골풍습 때문에 별도의 집회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여성들은 집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 이런 남부 지방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무겁다 못해 찢어질 듯 아프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버려두어야만 합니까? 지금 이곳 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더 이상 시간을 쪼갤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자기 능력 이상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더 부담을 지어주라는 말입니까? 지금 당장 이 지역에 적어도 두 명의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범죄가 될 것입니다. ... 우리의 이 연약한 무리들은 1년 열두 달 중에 다만 한두 번이라도 모아서 제대로 훈련시켜 양육한다면 머지않아 이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분량의 영적인 자녀들이 될 것이며.....

- 이덕주, 『스크랜턴-어머니와 아들의 조선이야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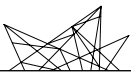
아들과 함께 수원, 공주 지방을 다녀 온 후 스크랜턴 대부인은 여자 교인들이 처한 형편을 설명하면서 미 감리회에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 요청 속에는 한국 여성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여성들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못해 찢어질 듯 아프기만'하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을 이방인처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처럼 여긴 것이다.



스�크랜턴과 해리스



스크랜턴 고베 묘지



패티와 별단이

스크랜턴 대부분의 교육 선교도 앞서 한국 여성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은 마음에 기초하고 있다.

1886년 봄, 정동에 병원 부지를 구입하여 건물 내부를 수리하고 6월 15일에 문을 열었다. 첫 환자는 풍토 열병에 걸린 중환자였는데 우리는 그녀가 서대문 근방 성벽에 내팽개친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환자 옆에는 네 살배기 딸이 붙어 있었다. 우리 모두가 '패티'라 불렀던 그 환자는 작년(1897년)에 죽었지만 별단으로 불리는 그 딸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다.

W. B. Scranton, "Historical Sketch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Korean Repository (Jul. 1898)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양육하였다. 질병에 걸린 아이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하다 사망했지만 아이를 이화학당에 입학시켜 교육을 받게 하였을 뿐 아니라, 생활도 책임졌다. 스크랜턴 대부분의 교육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국 여성 교육의 산실 이화학당

그녀는 1885년 10월에 자기 집 뒤 성벽 바로 안쪽에 있던 초기집 19채와 일대 언덕 부지를 구입하였다. 1886년 2월부터 부지 안에 있던 초기집들을 헐고 언덕을 깎아 새로운 건물 부지를 조성하고, 11월 교사 사택과 학생 기숙사 시설을 갖춘 'ㄷ'자 형의 한옥 건물을 완공하였다. 한옥 기와집으로 2백여 칸 되는 웅장한 교사가 마련된 것이다. 공사비는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 사는 교인 블랙스톤(W. E. Blackstone) 부인이 보내온 3천 달러와 미 감리회 여성 교회 뉴욕지회에서 보내온 7백 달러로 충당하였다. 이화학당은 이후 한국 여성 교육의 산실인 동시에 여성 선교의 중심점이 되었다.



이화학당 교사(1880년대 말 촬영)



이화학당



운산금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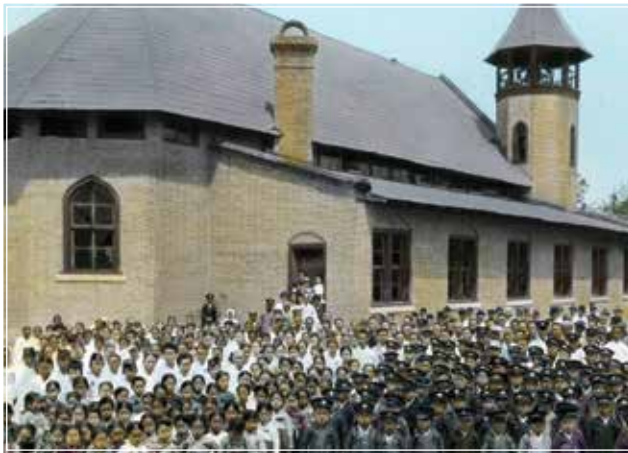
1890년대 이화 학생들

1900년대 이화학당 학생들





스크랜턴 대부인과 이화학당 학생들



상동교회



시병원과 상동교회

여성 성경 공부와 여성 교회 설립

아픈 아이를 돌보는 심정으로 시작한 그녀의 선교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성경 공부와 여성 교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후 남대문 달성위궁으로 거처를 옮겨 아들 스크랜턴과 함께 달성교회(상동교회)를 설립하였다. 동대문 볼드 원예배당 설립을 지원하였고, 수원과 이천, 공주 등지를 다니며 여성 선교와 각 지역의 교회 설립에 공헌하였다.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자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하였다. 1893년 봄부터 상동교회 출신 여성과 '교리공부반'을 시작했고, 1894년부터 '부인성경학원'을 시작했다. 한국의

첫 여성 신학 교육 기관이었다. 여기서 교육을 받은 이경숙, 여메레, 백헬렌, 김세라 등 많은 전도 부인들이 서울과 경기도 인근 지역으로 퍼져 여성 선교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처럼 스크랜턴 대부인은 한국의 교육과 여성 선교, 그리고 지역 선교의 초석을 놓았다. 어떻게 이리도 헌신적이고 열정적일 수 있었을까? 이런 이유로 그녀의 삶은 오늘의 교인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다.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섬겨할 이웃으로 보는 것이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말이다.

하이데거가 말한 중요한 말

글 · 한재욱 목사(강남비전교회)



“하이데거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선 존재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음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하이데거는 ‘죽음으로의 선구(先驅)’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사유의 차원에서 죽음을 향해 먼저 뛰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죽음을 직시하기 전엔 결코 몰랐던 삶의 소중함이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남희 저(著) 『천천히 안아 주는 중』 (세계사, 232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흔히들 좋은 삶이 좋은 죽음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좋은 죽음이 좋은 삶을 이끅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 상반절)’

따라서 죽음과 영원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숙제를 안 해 놓은 학생은 축구가 아무리 즐거워도 그 즐거움은 전반전뿐입니다. 후반전 아니 종료가 가까울수록 불안합니다. 그리하여 웰빙(well being)은 웰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옵니다.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 속에서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1]’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일어나라!

교회학교,
새벽기도로 새 학기의 문을 활짝 열다



☞ 기도로 여는 새학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새 학기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 매 기도회마다 1천 명을 훌쩍 넘긴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거룩한빛광성교회 광성홀에서 열린 새 학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기도로 여는 새 학기'란 주제로 열린 새 학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교회학교 주관으로 개학을 앞두고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기도로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와 많은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다음 세대를 세워 갈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월요일 1천 3백여 명, 화요일 1천 오백여 명, 수요일 1천 7백여 명, 목요일 1천 오백여 명, 금요일 1천 6백여 명이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했고, 저녁 금요기도회에는 1천 8백여 명이 참석했다.



⌘ 교육위원회 임원들과 교회학교 교역자, 교사들이 매일 새벽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며 헌신했다. 제육컵밥을 배식하고 있다



박요한 목사 설교 메시지

기도로 여는 새 학기

2월 25일 월요일

형통한 가정, 형통한 새 학기 창세기 39:1-6

2월 26일 화요일

기도하는 새 학기 열왕기상 18:41-46

2월 27일 수요일

은혜로 가는 새 학기 열왕기하 5:15-19

2월 28일 목요일

믿음의 새 학기 누가복음 1:5-17

2월 29일 금요일

영광의 새 학기 요한복음 5:2-18


5일 간의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준 박요한 목사. 거룩한빛 광성교회 교육부를 담당하는 박요한牧사는 말씀준비와 여러 사역으로 인해 하루에 두 세 시간도 제대로 못자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벽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겼다고 뜨거운 감회를 전한다.



▲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박요한 목사



▲ 매일 기도회 후에 아이들은 출석 체크를 하고 기도카드에 스티커를 붙였다. 6번(5일)의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1번의 기도회를 개근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축하선물 전달, 개근 학생 335명, 개근 교사 208명



▲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와 딸. 새 학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매일 초코파이와 컵라면, 음료수 등 간식을 무제한 제공하고, 식사로 제육컵밥과 샌드위치를 준비했다

나를 발견한 새 학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글 · 고예림(거룩한빛광성교회 고등부)



저는 거룩한빛광성교회의 고등부 학생 고예림입니다. 초등6부에서 보조 교사로 상고 있습니다. 혹시 새 학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를 나오셨나요?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벽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이다 보니 혹시 설교 시간에 졸면 어쩌하나 등등 여러 두려움 속에 새벽기도회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도 졸리지 않고 오히려 다음 설교를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놀랐고 가장 놀란 것은 새벽기도회를 다녀오면 피로와 졸음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마치 운동 후 깨끗이 씻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무척 개운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새벽기도회를 출석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많은 성도가 교회에 온다는 것 무엇보다 그중에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새벽에 버스가 없어 일산시장에서 걸어오는 학생도 있었고, 스스로 일어나 부모님을 깨워 교회를 가자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긴 방학 동안 바뀐 밤낮 생활 패턴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설교 말씀도 좋았습니다. 또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기도회가 끝나면 아침을 먹어 좋았습니다. 새벽 알뜰부려 아침 식사를 위해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특별새벽기도회 첫째 날 기도회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친구가 와 좋았고 인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부터 조금씩 기도의 양을 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친구들 생각도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더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할 때 기도를 멈추고 일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언젠가는 그 응답을 받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제 스스로가 믿음과 기도의 부족을 못 느끼고 계속 특별새벽기도회를 나갔다면 은혜를 많이 못 받았을 수 있었겠단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 특별새벽기도회였지만 가서는 저의 약해진 신앙심을 볼 수 있었고, 믿음과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갔고 시간이 자날수록 약했던 저의 신앙심 또한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새 학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였고, 기도회에 노력해 주신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 울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피곤한 새벽 시간에도 부모님과 아이들,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가 되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 화요일 초등 3부의 찬양 인도. 월요일 영·유아·유치부, 화요일 초등 1·2·3부, 수요일 초등 4·5·6부, 목요일 사랑부, 금요일 중·고등부가 특송을 했다



⌘ 새벽을 깨우는 기도

☞ 락인캠프 행사 후 격승현 담임목사님, 선생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0년에는 더 풍성한 락인캠프가 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손 하트를 선물했다



글로벌 리더들이 자라는 어린이영어예배부로 초대합니다

글 · 김진아 집사(영어예배부장)

기록한빛광성교회 어린이영어예배부(Children's English Ministry)는 2002년에 창립되어 올해 열여덟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매주일 오전 9시는 초등 1-3학년, 10시 30분은 4-6학년 학생들 약 1백여 명과 교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설교까지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반별로 설교와 관련된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어린이영어예배부의 장점

어린이영어예배부의 장점은 첫째, 충만한 영성으로 학생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한 공동 중보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주일 자발적으로 모여 성경 통독 및 기도모임을 합니다.

둘째, 즐거운 찬양으로 믿음의 기초를 배웁니다.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 노래(Ten Commandment Song), 성경제목 노래(Bible Song), 주기도문 노래(The Lords Prayer) 등을 부르며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셋째, 다양한 전통의 예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 절기마다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김은하 목사님의 엄선된 고증을 거쳐 교회 역사의 전통에 기반한 풍성한 예전적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영어예배부의 주요 행사는 Lock in Camp(겨울캠프/겨울성경학교), Mission Bazar(선교바자회), Hallelujah Day(할렐루야 데이)가 있습니다. 선교바자회는 학생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여 매년 북한 선교를 위해 후원하고, 할렐루야 데이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전통과 역사가 숨 쉬고 있는 믿음의 현장을 방문합니다.

≡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손을 높이 들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어린이들



≡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락인캠프

2019년 1월 25-26일까지 1박 2일간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락인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Babylon-Daniel's Courage in Captivity(바벨론-포로 중에 다니엘의 용기)'라는 주제로 바벨론 점령 하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켜 자신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락인캠프 첫째 날은 감동적인 예배와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바벨론 문화를 체험하는 네 개의 코너 활동이 있었습니다. Tribe Time 코너는 보석함 만들기 등의 체험을 통해 바벨론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Daniel's Adventures 코너는 말씀 암송 등의 활동을 통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배웠습니다. Palace Playground 시간에는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즐거운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돈독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Celebration 시간에는 다섯 곡의 노래를 익혔습니다. 드디어 캠프의 마지막 닫는 예배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각승헌 담임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캠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영어예배부는 세계 시민으로서 선교자의 삶과 자세를 배웁니다. 장차 학생들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섬기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함께 동역하실 선생님들과 믿음의 성장을 할 친구들을 어린이영어예배부로 초대합니다.

-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초등1-3학년) / 오전 10시 30분(초등4-6학년)
- 어린이영어예배부 카페 : <http://cafe.daum.net/kscem>
- 문의 : 김진아 부장(010-2281-3814)

≡ 어린이영어예배부를 섬기는 선생님들



나는 '긍정왕'

글 · 송한나래(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 충청남도 태안에 있는 해변에서 아빠와 함께 등반했을 때 찍은 사진. 경기를 위한 훈련은 주로 인공암벽에서 하지만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자연암벽을 등반하기 위해 산으로 나갑니다.
산에서 등반을 하고 정상에서 경치를 둘러볼 때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홀드와의 첫 만남

'빙벽여제', '월드챔피언', '긍정왕' 등 나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긍정왕이다. 긍정왕은 내가 자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불렸으면 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오르는 것에 익숙했다. 산악인이신 아버지는 주말마다 산에 가셨고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했다. 클라이밍(암벽등반)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파주로 이사를 오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을 때, 아버지를 따라 실내 암벽장에 갔다. 8m의 벽에 알록달록한 돌멩이(홀드)들이 내 눈에는 그렇게 예쁘고 재미있어 보였다. 새로운 놀이터를 찾은 나는 그 뒤로 매일같이 매달려 놀았고, 대회에 출전해 보자는 코치님의 권유로 전국대회에 나가 첫 출전부터 2위에 입상했다. 그 후 나는 항상 1위, 상위권 성적이었다.

부상, 하나님과의 만남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어른들과 겨뤄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무리한 훈련으로 양 손가락 성장판 뼈에 금이 가고 성장기였던 몸 여기저기에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 즈음에 우연한 기회로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다. 그때의 나에게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의지가 되었다. 성경 말씀도 처음 접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지만 믿어지는 것이 신기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힘듦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고 답답했던 마음이 편안해졌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완전하진 않았지만 기적적으로 부상에서 회복되었다. 다시 경기에 출전하며 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며 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시간을 아껴 틈틈이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그 결과, 비인기종목이라 대회성적만으로는 대학입시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원하는 대학, 과에 합격할 수 있었다.

1



'빙벽여제'가 되다

선수로서, 학생으로서 몸과 마음이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아이스클라이밍(빙벽등반)을 해 보게 되었다.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아이스클라이밍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 2년 만에 월드컵에서 우승하게 되었고 '빙벽여제'라는 수식어를 갖게 되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많다. 한 시즌을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감이 넘쳐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부상의 위험도 항상 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 내 헬멧에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적혀 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어느 무엇보다 안심이 되었다. 나는 우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고 기도한다. 좋은 성적을 내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모두 발휘해서 멋지게 등반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한다.

1. 2018년도 시즌 중 이탈리아 라벤스테인에서 열린 'UIAA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4차전 대회' 시상식. 이 경기까지 이탈리아에서 3년 연속 우승하여 더 기쁘고 의미있었습니다
2. 2018년도 시즌 중 스위스 샤스페에서 열린 'UIAA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3차전 대회' 결승전 등반 모습. 지하 10층부터 시작되는 원형 주춧돌위에 경기장이 있는데 관객들이 가까이에서 다양한 각도로 등반을 관람할 수 있어 응원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나 스스로를 믿는 힘

이 세상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때론 좋지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한다. 그럴 때 나는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대상이나 상황을 판단해 본다. 그 과정에서 대상의 입장이나 환경에 대해 좀 더 이해하려고 애쓰게 되고 어느 정도는 분노가 사라진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과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어떤 그릇의 사람이 될지에 대한 내 마음은 비교적 바꾸기가 쉽다. 처음부터 온전히 괜찮지 않을 수 있다. 상처가 남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면 훨씬 단단해질 것이다. 타인의 생각, 시선에 갇히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를 믿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것처럼. 긍정의 힘은 누구에게나 가치 있게 평가되지만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의 긍정 파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긍정왕'이 되길 바라며 믿음 안에서 더욱 강해지길 소망한다.



2



사진 : 박혜준

☞ 사랑과 염려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길 원한다면, '너'가 아닌 '나'로 바꾸어 말해보세요

I-Message, '나'로 대화하기

- 함께 **사랑**하고 싶기에 **배우고픈 것들**

글 · 유동규(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 '아이 메시지(I-message)', 즉 '나'로 이야기하는 대화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나 의견의 조율, 혹은 격정적인 감정이 담긴 대화를 해야 할 때, 대화문의 주어를 '당신'이나 '너'가 아닌 '나'로 바꾸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뱃짐 내놓으라 한다

유명한 속담이지요. 아마도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바지 적삼을 적셔가며 자신을 도와준 선비에게, 신세를 진 행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아무 생각 없이 구해냈기 때문에 내 뱃짐이 떠내려가 버렸소. 당신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내 뱃짐까지 건져올 수 있지 않았겠소!”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함께 분개하거나, 몰상식한 행인을 향해 혀를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다면 어땠을까요. 겨우 물에서 건져진 행인과 선비가 물가에 드러누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뱃짐이 없어진 것을 알아챈 행인이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저 뱃짐이 나에게 참 중요한 것이었는

데 물에 떠내려가 버렸구나! 우리 어머니께 드릴 약을 겨우겨우 구해왔는데, 내가 내 목숨 하나 구하자고 그 귀한 약을 놓치다니! 슬프고 애통하구나!”

여전히 객관적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선비가 행인을 구했고, 붓짐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선비나 독자들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선비는 행인에게 혀를 차며 떠나가는 대신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붓짐을 찾아보기 위해 개울가를 뒤져본다거나, 혹은 울고 있는 행인을 진심을 다해 위로해 주었을지도 모르지요. 이 이야기의 독자들도 행인을 욕하는 대신, 행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해피엔딩이 되길 바랐을 것입니다.

I-Message의 힘

위 두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인의 언행입니다. 첫 이야기의 행인은 자신의 상황의 어려움, 감정의 상함 등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당신’이 어떠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고, ‘너’는 이런 행동들을 고쳐야한다 하는 식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결과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이야기의 행인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행인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탓을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를 주어로 하여,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느끼고, 내가 받은 영향은 이러하다고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큰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로 대화할 때에는, 그 말속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질타나, 내 기준에서의 판단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이는 ‘너’로 칭해지는 상대방이 일종의 공격을 받았다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방어기제를 발동하여 그 반응으로 분노, 공격, 침묵, 도피 등의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둘의 이야기가 처음 나누려고 했던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없고,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의 관계와 감정 또한 악화시킵니다.

반면, ‘나’로 대화 할 때는 그 결과가 사뭇 달라집니다. ‘너’로 칭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질타나 판단의 목소리를 배제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조금 더 본인의 입장을 자세히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 대화에서 표면상에 비춰지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너’인 상대방은 그 대상에 대해 온전히 공감하기가 쉬워집니다.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이 모두 상대방의 행동을 내 기준으로 폄하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표할 수 있으며 관계의 진전에도 용이합니다.



△ ‘나’로 말하기를 통해 공동체 나눔을 진행하는 청년들

당신을 사랑하기에, ‘나’로

항상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지만, 또 걱정하고 오래 기다렸지만 한 순간의 대화가 분노로 튀어나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사람과 서먹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과 다른 말이라도, 한 번의 실수라도 그것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참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바란다면, 우리의 사랑과 염려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길 원한다면, 이번에는 ‘너’가 아닌 ‘나’로 바꾸어,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충분히 전달되길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삶, 프랑스은혜교회 김은영 선교사님

글 · 이선영(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 독일 수련회 섬김을 마치고 - 프랑스은혜교회

배우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대상과 일대일로 대응되는 개념이 아닌 것들, 특별히 어떤 종류의 느낌을 포괄해 지칭하는 감정이나 상태는 A는 B라고 가르쳐 줄 수 없는 까닭이다. 어릴 적, 나는 '저리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살 속에서 뽀족한 가시가 달린 공이 마구 굴러다니는 그 느낌을 아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반복된 경험이 쌓이면서 비로소 이런 느낌을 '저리다'고 하는 것이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프랑스 여학연수 기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았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모호한 개념이었다.

그때의 나는 소망 없는 삶의 이유를 끊임없이 묻는 생각 때문에 많이 아팠고, 이유 모를 무기력으로 지친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걸음마를 떼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자꾸만 넘어지던 내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신 분이 프랑스은혜교회 김은영 선교사님이였다. 내가 있던 곳은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세 시간이 걸리는 지방이었는데도 전도사님과 함께 격주로 성경 공부를 오셨고, 파리에 올라가면

늘 환영하며 먹여 주시고 재워 주셨다. 넘어져 있을 때에는 기다리며 기도해 주셨고, 매일 붙들 말씀을 보내 주셨고, 좋아한다는 떡볶이를 해 주시기 위해 지방 선교팀과 함께 냄비며 미리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먼 길을 오시기도 했다. 모든 유학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이였다.



△ 송석배, 김은영 선교사님

금세 떠날 내게도 프랑스에서의 엄마가 되어 주신 김은영 선교사님의 목적도 이유도 없는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추상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사랑의 첫인상은 바라지 않고 기꺼이 주는 기쁨이었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

랑함에서 나오는 뭉클함이었다. 당연하다는 듯 엄청난 사랑이 배어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이 담긴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웠고, 닮은 사랑을 내 삶에 담아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들, 가족에서 주변의 가까운 관계들, 작은 관계에서 사랑청소년부, 섬기는 부서에서 내가 속한 사회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넓히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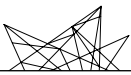
여전히, 나의 사랑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낀다. 그렇지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신 선교사님처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기도한다. 나의 연약함을 볼드시는 완전한 사랑을 통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 줄 수 있는 삶이길 소망한다. 갈등이 구조화되는 사회에서도 혐오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기쁨을 아는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물결이 지나는 곳마다 더 큰 사랑과 생명이 일어날 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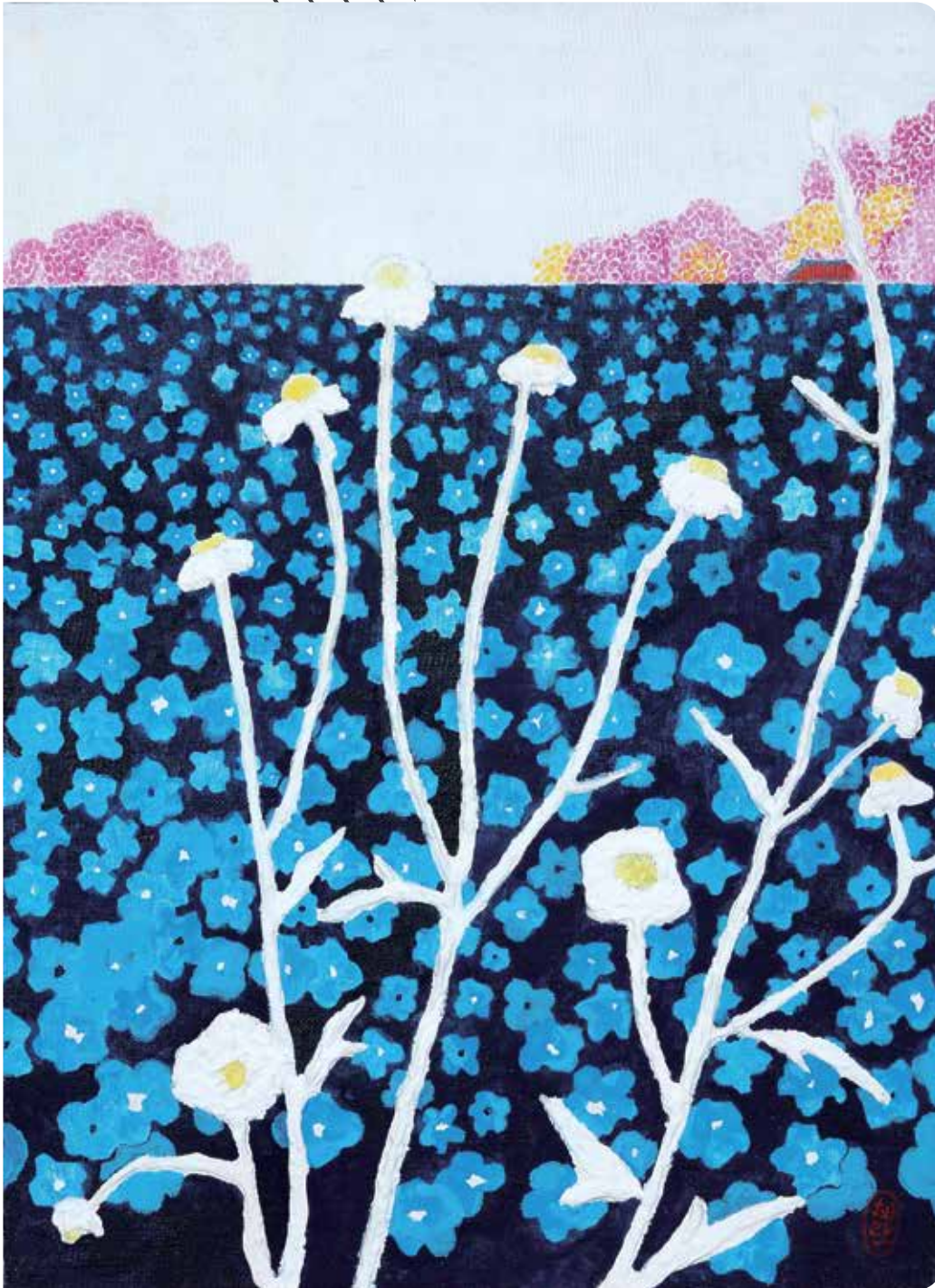
△ 거룩한빛광성교회 1청년부 이선영



문화산책



흔적



작가노트

재잘거리듯 핀 개나리
 함박눈같이 흩날리는 벚꽃...
 미적 세계는 삶과 소통한다
 꽃잎 하나에 사랑을 담고
 그리움을 담아
 빨간 지붕 너머 소소한
 행복이 담긴 동네를 그린다
 미소가 번진다
 봄이다
 인생도 봄이길...



이해란

개인전&아트페어 11회
 그룹전 1백여 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외 다수
 현) 한국미술협회 한국화 분과이
 사, 고양미협 회원

봄의 전령, 봄 햇살 담은 차, **목련꽃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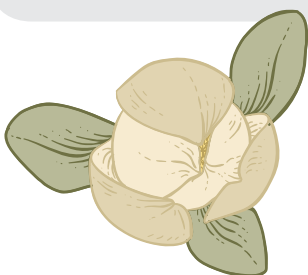
글·사진 김규리 성도

겨울의 늑골을 통과한 봄의 전령,
그 햇살을 다독이며 봄이면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잎도 없이
혼자 피는 꽃!

〈사월의 노래〉에서 시인 박목월은 이렇게 외쳤다.

‘목련꽃 그늘아래서 /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 / 구름 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 아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생략)

세상의 모든 꽃은 화무십일홍의 수순을 밟는다. 비록, 봉오리
때 내게 간택되어 꽃차로 태어나기까지 지지고 볶고 생채기를 내
어 불쌍하게 생을 마감하는 꽃을 불라치면 꽃차 만드는 작업을
그만둘까도 했었다. 하지만 나무에 매달려 오가는 이들의 눈길
을 끌어 위안을 주고, 차로 태어나기까지 고통의 순간을 감내하
고 누군가의 첫잔 속에서 활짝 꽃을 피우며 맛과 향기를 선사하
고 생을 마감하는 꽃차. 이 꽃차야말로 화무십일홍의 위업을 홀
륭하고 아름답게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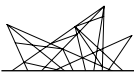


다도에 관해 다룬 조선후기의 책 『다신전』에서는 ‘사람들
이 차를 마실 때는 사람의 수가 적어야 가장 고귀하다. 차를 마
시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소란스러우며 차를 마시는 아취를 찾
아 볼 수가 없다. 홀로 앉아 마시면 신비롭고, 두 사람이 함께
마시면 고상한 경지가 있고, 3-4인이 어울려 마시는 것은 그저
취미로 마시는 것이고, 6-7인이 모여 차를 마시는 것은 서로 칭
찬을 주고받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사월에는 모든 꽃이 피기 시작한다. 토머스 엘리엇은 〈황무지〉
에서 사월에 대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 기억과 욕
망을 뒤섞으며 / 봄비가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라고 했다. 모든
꽃이 피어나는 사월, 이 시와 어울리는 목련꽃차를 가까운 벗
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

목화꽃차의 효능

비염과 축농증 개선, 피부 미용 효과, 폐와 기관지에 효과, 냉
증 개선, 항염증 활성 효과, 자궁 건강 개선, 두통 및 치통 완화,
복통과 불임에 효과



황혼의 연가(戀歌)

글 · 김은숙(수필가, 필명 김지형)

戀歌



사진 · 황익철

오늘도 그 자리, 황혼 길에 서로 비둘기같이 마음을 의지하며 지냈던 두 분이 머문 자리에는 빛바랜 영산홍 꽃잎만이 속절없이 지고 있다.

나는 개인적인 일로 매주 목요일 3호선 전철을 타고 종로구 안국동에 간다. 내가 나가는 시간은 러시아워를 조금 넘긴 때라 지하철 안에는 젊은이보다 연세 지긋한 노인들이 눈에 많이 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주춤주춤 걷는 노인들도 많다. 처음 그 분들을 보았을 때, 저렇게 불편한 몸으로 집에 가만히 계시지 어디를 다니나 하고 의아해 했다.

얼마 후 그곳에 노인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수년 전 윤현궁 건너편 옛 통계청 건물에 노인복지관이 설립된 것이다. 복지관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삼삼오오 모여 서성거리다, 점심시간이 되면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노인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꼭 점심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 안에 갇혀 식구들 눈치 보느니, 차라리 나와서 동년배들과 말동무도 하고 각종 실버프로그램에 참가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어느 날 건물 뒤편에 인적이 드문 후미진 지름길이 있어 그길로 다니기 시작했다.

그곳은 때마침 봉우리를 뚫은 철쭉, 영산홍, 벚나무 등으로 아름답게 조경이 되어 있고, 팔각정자까지 들어선 운치 좋은 공간이었다. 정자마루에는 일찌감치 나온 노인들이 하나 둘 난간에 기대앉아 말없이, 오가는 행인에게 눈길을 주고 있었다.

하루는 그 길을 지나다 보니 영산홍이 만개한 꽃그늘 아래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자리를 펴놓고 식사를 하고 계셨다. 서로 반찬을 놓아주고 갇힌장아찌를 입에 넣어 주고 하는 모습이 여간 다정해 보이지 않았다. 부부라면 이렇게 이른 시간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실 리가 없을 텐데, 각자 홀로 된 처지라는 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다. 그 모습이 한편 흐뭇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어쩐지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집안에서의 입지가 거북한 할아버지를 위하여 할머

니가 아침 식사를 챙겨가지고 나와서 같이 드시는 것 이리라고 혼자 마음대로 추측해 보았다. 언제나 그 시각 그 자리에서 두 분은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며 담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신문지를 깔고 화투를 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할머니는 늘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화려한 재킷을 걸친 멋쟁이였으나 한눈에 보아도 유난히 안색이 창백했다. 할아버지는 아주 근엄한 교장 선생님 타입이었다.

나무그늘이 점점 푸르러 가고 있는 어느 아침, 그날 따라 노인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늘 다정하게 그 자리에 오순도순 앉아 계실 줄만 알았는데 오늘은 보이질 않으니 내심 몹시 궁금했다.

‘무슨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셨겠지...’

그러나 다음주, 그 자리에는 할아버지 혼자 우두망찰서 계셨다. 반찬을 놓아주거나 마주 바라보며 같이 웃음 짓던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 그 다음주에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고 할아버지 혼자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계신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순간 할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에서 불길한 예감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하고 묻고 싶었으나 그동안 그들의 모습을 훑쳐보았다는 걸 들키는 것 같아 아쉬움을 품은 채 그대로 지나쳤다. 그러다 갑자기 급해진 마음에 내일은 꼭 여쭙봐야지 하며 버르고 나갔는데 그 날은 할아버지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다시는 그 자리에서 두 노인의 모습을 영영 찾아볼 수 없으니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영원한 젊음은 없다. 두 노인에게도 아름다운 청춘이 있었을 것이다.

나도 저들처럼 나이 들어가고 있으니 남다른 연민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도 그 길을 지날 때면 언제나 서로 다독여주며 행복해하시던 그분들의 환영이 떠올라 가슴 한 편이 아려온다.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

글 · 강혜미



지금은 덜한 것 같지만 필자가 어렸을 적만 해도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면 마땅히 위인전이 전집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읽으며 본을 받으라는 부모님의 바람 때문이었으리라. 우리 집에 있는 위인전은 두꺼운 양장예다 위인의 얼굴이 책 표지에 클로즈업 되어 그려져 있었다. 때마다 한 권씩 읽고 부모님 앞에서 주인공인 위인의 업적을 나열하는 일종의 테스트를 받아야 했기에 위인전 읽기는 그리 즐겁지 않았다. 그런데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위인이 있다. 바로 유관순.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관순 누나'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위인들과는 다르게 친근하게 느껴졌다고나 할까? 지금도 그때 그 위인전 속 유관순 누나의 삽화가 기억나는 걸 보면 꽤나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얼마 전 100주년을 맞이한 3·1절을 보내며 유관순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를 한 편 보았다. 이전에 유관순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은 제목 전면에 유관순을 내세운 반면 이 영화는 '항거'라는 제목에 '유관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았다. 영화를 보러가기 전 약간의 걱정을 했었다.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들이 투옥된 후 시달린 고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 잔인한 장면들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혹은 눈물샘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 상영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지를 한 움큼 챙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위인전이 위인의 출생에서부터 업적을 이루는 순간까지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면 이 영화는 철저하게 투옥 후 유관순의 모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또 특이한 것은 투옥 후의 모습은 흑백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투옥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오히려 컬러로 처리되어 좀 의아했었다. 그러나 영화를 다 보고나서 생각해 보니 흑백은 꼭 필요한 장치가 아니었나 싶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은 입소과정을 거쳐 여옥사 8호실에 배정을 받는다. 여옥사 8호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두세 평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내부에 사람이 꽉 차 있는 채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드라마틱한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누울 자리가 없어서 있다가 교대로 누워 잠을 청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수감자들은 계속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을 반복한다. 그 와중에 누군가 아리



랑을 부르고, 이내 모두가 아리랑을 목 놓아 부른다. 점차 소리가 커지고 인근 옥사에까지 노랫소리가 이어지자 교도관은 조용히 하라는 엄포를 놓는데, 그 모습에 유관순은 우리가 꼭 개구리 같다고 말한다. 크게 울다가도 사람이 오면 울기를 멈추는 개구리. 수감자들이 다시 아리랑을 부르자 교도관은 또 제지를 가하고 수감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다”를 외치게 되는데, 이것이 발미가 되어 유관순은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린다.

이후 유관순은 마치 관과 같은 상자 안에서 선채로 버텨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조선인이면서 일본 순사가 된 정춘영이 일본어로 꺼내달라는 말을 하면 꺼내주겠다며 회유를 한다. 어디 유관순 뿐이었을까? 아마도 감옥에 갇힌 수많은 독립투사가 이러한 말로 회유를 당했으리라. 육체의 고통을 덜어 줄 테니 민족정신을 포기하라고. 그러나 유관순은 이를 과감히 거절하고 무려 일주일을 버텨낸다.

이후 3·1운동의 1주년이 돌아오고 있음을 직감한 유관순은 그간의 모습과는 다르게 공손한 모습으로 교도관에게 노역을 하고 싶다는 피력을 하게 된다. 노역을 하며 정확한 날짜를 가늠하고, 남옥사의 상황을 알고자 함이었다. 결국 날짜를 알게 된 유관순은 1년 전 만세를 외치던 그 날, 다시 한 번 대한독립만세를 외친다. 옥사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결의에 찬 만세를 부르는 유관순과 여옥사 8호실의 수감자들. 이를 계기로 모든 감옥의 수감자가 만세를 외치게 되고,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며 인근 마을에도 만세의 물결이 치게 된다.



결국 유관순은 주동자로 지목되어 열일곱 나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초를 겪게 되는데, 이 장면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잔인하게 묘사되지는 않는다. 피를 흘리는 장면도 흑백이기 때문에 절제되어 보이고, 영화 자체도 고문의 잔인함보다는 서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것이 일제의 잔인함과 악랄함보다는 그에 맞서는 민족정신, 항일정신의 숭고함을 극대화 시킨다.

많은 눈물을 흘릴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 영화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유관순을, 아니 유관순 열사를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지 않으려는 감독의 의도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영화가 사실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사실에 가까운 상황에 살을 붙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의 한 부분을 일깨운다. 사실 역사의 흐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남성 위주의 역사 속에서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이 영화는 꼭 여성이라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의 누구라도 불합리한 압제에 항거할 수 있었음을, 아니 항거했음을 보여 준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지켜진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독립된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뿐만이 아니다. 죄인 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절대적이었음을, 우리가 노력해 얻은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천국시민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모차르트가 사랑했고, 프란츠 카프카가 평생 떠나지 못했던 프라하 그 빛을 걷다

글 · 사진 전영의

‘나의 오케스트라는 프라하에 있다’라고 했을 만큼 모차르트가 사랑했고, 문학과 사랑 그 어느 것도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은 도시였지만 프란츠 카프카가 평생 프라하를 떠나지 못했다. 프라하를 걷다 보면 프란츠 카프카의 뜨거운 물음을 외면할 수 없다. ‘당신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프라하를 걷는 동안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술가와 연인들의 무대 프라하

수많은 예술가가 사랑했고, 수많은 연인이 청춘을 구가했던 프라하. 프라하가 없었다면 모차르트가 없었고, 작가 프란츠 카프카를 만날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시인으로서의 첫발을 뗀 곳이 프라하이로, 체코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시절 〈나의 조국〉이란 교향시로 민족혼을 일깨웠던 베드르지흐 스메타나가 프라하에서 태어나 프라하에서 죽었다.

모차르트의 생애를 다룬 영화 〈아마데우스〉가 프라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영화를 연출한 밀로스 포만 감독 역시 프라하에서 살았다. 젊은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그린 우리나라 모 방송국의 특별 기획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또한 그 무대가 프라하이다.

프라하를 빛으로 채운 사람들. 그들이 있어 사람들은 프라하를 찾는다. 또 전쟁의 상흔이 얼룩진 피의 땅을 끌어안고 살고 보듬으며 천 년 세월을 일군 프라하 시민들이 프라하이다.

중세 ‘가난한 자의 성경’이라 불렸던 스테인드글라스 성화가 유명한 성비투스대성당, 보헤미아 왕들이 머물렀던 궁전, 르네상스풍의 왕실 정원, 사격장 등 프라하 성에는 보헤미아 왕국부터 지금의 체코까지 그 흔적이 장구하다. 특히, 프라하 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막사였다가 16세기 연금술사와 금은 세공사들이 살아 ‘황금소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작은 골목에는 『성』과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작업실이 있다. 열다섯 채 남짓한 집들이 오밀조밀 붙어있는 황금소로 22번지, 카프카가 글을 쓰던 작업실 앞에 서니 사진 속 그가 말을 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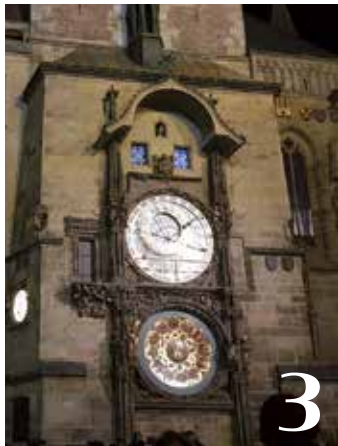
‘당신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1. 보헤미아의 군주들이 대관식을 올리고 사후 매장되어 온 장소인 성비투스대성당
2.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는 카렐교. 이 다리 위를 걷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프라하를 찾는다
3. 매 시 정각 시간을 알리며 '죽음'에 대한 퍼포먼스로 목격한 울림을 주는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의 천문시계



2



3

4. 프라하 성의 황금색 야경. 앞쪽 카렐교 아래로 흐르는 블타바 강이 석양빛에 물들 때면 사람들은 걷는 것을 잊는다. 그저 바라 볼 뿐이다. 오늘날에도 이곳은 여전히 예술가에게 영감을 선물하고, 연인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행자의 시간을 잡아 세운다



4

카렐교를 걷고 싶어 프라하에 오다

카렐교를 꼭 걸어보고 싶었다. 블타바 강물 위에 우뚝 서 체코의 수도 프라하와 구시가지지를 잇는 역사와 낭만의 다리, 카렐교. 그 다리 위를 걷고 싶어 프라하에 왔다. 다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교탑 안으로 들어서니 금방 걸음이 멈춰진다.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과 악사들의 퍼포먼스, 관광객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의 붓끝이 여행자의 시선을 놓아주지 않는다.

어느새 블타바 강변에 늘어선 붉은 지붕과 청록색의 첨탑 위로 석양이 내리고 천 년 세월을 품고 흐르는 백탐의 도시 프라하의 감성이 고즈넉하게 드러난다. 프라하 성이 온통 황금빛이다.

카렐교를 만든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프라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카를 4세이다. 다리 이름도 그의 이름에서 연유했다. 카렐교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 하나', '유럽 중세 건축의 걸작'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다리 위에 장식된 서른 명의 체코 성인상 중 유독 성 안네포무츠키 조각상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유가 있다. 왕비 조피에의 고해성사를 들은 성 안 네포무츠키는 왕비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왕 바츨라프 4세의 협박에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고문 끝에 카렐교 다리 밑으로 던져졌다. 죽음으로써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순교 장면을 묘사한 부조를 쓰다듬으면 행운이 온다는 전설 때문에 그 앞을 늘 사람들로 붐빈다.

카프카의 침묵

왕의 대관식 행렬이 지나가던 '왕의 길'을 걸어 프라하 구시가지로 갔다.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지구답게 루터와 칼뱅보다 앞서 종교개혁을 먼저 일으켰던 안 후스의 동상을 비롯하여 성니콜라스교회, 틴성당, 킨스키궁전 등 시대의 굵직한 건축물들이 정교하고 화려한 면모를 자랑하며 광장을 둘러싸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구 시청사탑의 천문시계이다. 매 시 정각 해골 모형이 죽음을 알리는 종을 치면 물질욕, 탐욕, 권력욕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세 개의 인간 군상이 죽음을 맞이한다. 곧 천문시계 위쪽에 있는 창이 열리면서 열두 사도가 지나가고 황금닭이 운다. 그 울림이 목격하다. 내가 잡고 있는 끈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역사와 문화,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라하. 걸어서 또 트램을 타고 프라하 속속들이 닿았다. 프라하에 입성하자마자 질문을 던졌던 카프카. 작별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는 한마디 말이 없다. 그는 내게서 이 질문도 거두어가지 않을 모양이다. 이제 비엔나로 간다.

'당신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는 책 정성진 목사의 우리가 부르는 삶의 노래

글 · 강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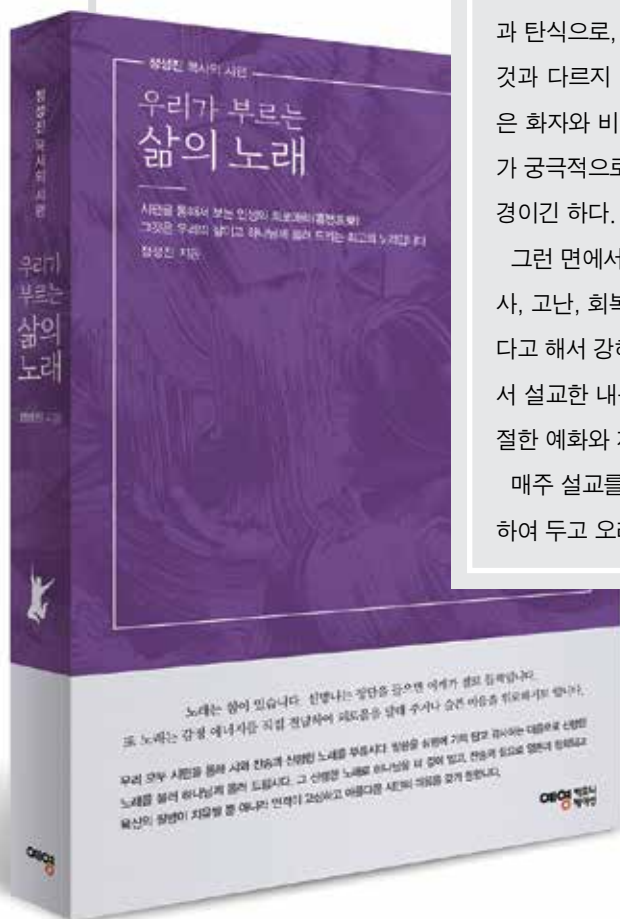
무려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읽어야 할 지 난감할 때가 있다.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어떤 뜻을 가지고 시를 지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시가 있는가 하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를 시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를 적는 사람이 처한 상황과 감정에 따라 그 깊이가 다르고, 표현이 달리 나오기 때문이라.

시편에는 슬픔과 탄식, 두려움의 고백과 기쁨과 감사, 소망, 찬양의 고백이 두루 담겨 있다. 그것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40년의 방황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냥 평안을 누리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늘 적의 침략을 대비해야 했고, 실제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복을 따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늘 침략과 공격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쓰인 시편의 수많은 시는 어떤 때는 찬양과 감사로, 어떤 때는 원망과 탄식으로, 어떤 때는 반성과 참회의 시로 나타났다.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순종-불순종-회개-감사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해서 시편은 화자와 비슷한 감정상태일 때 읽으면 더욱 은혜가 되고, 그 의미가 선명해 진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하지만 여전히 시편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긴 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책은 참으로 유용하다. 시편 전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은혜, 감사, 고난, 회복, 소망의 키워드로 구분되어 있어 시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강해서라고 한다면 쉬이 읽히지 않을 텐데, 이 책은 2017년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선별해 정리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힌다. 성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예화와 저자의 깊이 있는 묵상은 시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매주 설교를 듣는다 해도 뒤돌아서면 잊히고 마는 것이 어디 나뿐이겠는가. 책으로 소장하여 두고 오래도록 보며 시편의 달콤함에 빠져 보기를 바란다.



BOOK AND BOOK

정리 · 강혜미



언약으로의 초대

저자 : 홍성인 | 732쪽 | 35,000원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봉동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홍성인 목사의 창세기 강해서이다. 128주에 걸쳐 강해한 창세기 1~50장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5장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창세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크나큰 서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저자 : 강성호 | 312쪽 | 15,000원 | 출판사 : 복있는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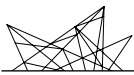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저항'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3·1운동과 신사참배 문제, 민주화가 한창 꽃필 시기에 부정선거 문제와 5·18항쟁 등 누군가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외쳐야 했다. 그 시기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근현대사 속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변화가 필요한 이 시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구원

저자 : 화중부 | 416쪽 | 20,000원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죄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이들이 있다. 이 책은 원시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창세기 3장을 세세하게 살펴 죄에 대해 일깨운다. 또 이를 통해 거듭남, 즉 구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죄에 대해 인식한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배우자 이월 과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글 · 모영철 집사(한솔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양도소득세 배우자 등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크다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한 후 양도를 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 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등 이월과세라는 규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고가주택 포함),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5년 이후의 양도는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의 규정을 숙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분립개척교회와 형제교회

개척교회

	교회명	담임목사	창립일	지역
1	주사랑교회	최정도 목사	2000년 06월 08일	파주시
2	안산광성교회	명 훈 목사	2003년 06월 26일	안산시
3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2006년 04월 02일	고양시
4	큰빛광성교회	이대성 목사	2007년 01월 21일	고양시
5	물댄동산수림교회	신종렬 목사	2008년 02월 23일	서울시
6	두란노광성교회	박준교 목사	2009년 01월 10일	고양시
7	생명의빛광성교회	이춘태 목사	2009년 03월 08일	서울시
8	은혜광성교회	김혜정 목사	2010년 01월 09일	용인시
9	사랑의빛광성교회	박경환 목사	2010년 03월 06일	대구시
10	행복한광성교회	엄태현 목사	2011년 02월 27일	인천시
11	예수광성교회	박정수 목사	2011년 03월 27일	서울시
12	하늘빛광성교회	박경수 목사	2015년 01월 25일	고양시
13	거룩한빛행신교회	송영석 목사	2017년 12월 03일	고양시
14	교하광성교회	홍종학 목사	2018년 03월 11일	파주시
15	거룩한빛운정교회	유정상 목사	2018년 12월 02일	파주시
16	거룩한빛시온교회	서동훈 목사	2019년 01월 20일	파주시

	교회명	담임목사	창립일	지역
1	덕양중앙교회	이형기 목사	2011년 11월 13일	고양시
2	푸른빛광성교회	문재진 목사	2012년 02월 05일	양주시
3	주만교회	이범주 목사	2013년 11월 24일	인천시
4	밀알교회	신동명 목사	2015년 11월 22일	서울시
5	불로교회	한민수 목사	2016년 05월 29일	인천시
6	동은교회	권대선 목사	2016년 08월 07일	안양시

형제교회



거룩한 빛

광 성 교 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2.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와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3.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 대 비전

- 지역사회 문화중심 ● 고양파주 성시본부 ● 한국교회 개혁모델
- 북한선교 전초기지 ● 세계선교 중심센터

예배시간안내

주 일	1 부 예 배	오전 7:30	광 성 홀	교 회 교	영 아 부	1부 오전 9:00	백 합(B1)
	2 부 예 배	오전 9:00	광 성 홀		유 아 부	2부 오전 10:30	장 미(B1)
	3 부 예 배	오전 10:30	광 성 홀		유 치 부	3부 낮 12:00	진 달 래(B1)
	4 부 예 배	낮 12:00	광 성 홀		초 등 1 부		무 궁 화(B2)
	5 부 예 배 (청년부)	오후 2:00	광 성 홀		초 등 2 부		난 초(B2)
수 요	농인부예배	오후 12:40	비전센터2동(2F)	교 회 교	초 등 3 부	1부 오전 9:00	비전센터2동(2F)
	찬양예배	오후 7:00	광 성 홀		초 등 4 부	2부 오전 10:30	드림교육 3-2동
	수요예배	오전 10:30	광 성 홀		초 등 5 부		드림교육 3-1동
	성경대학	오전 11:30	각 강의실		초 등 6 부		드림교육 1동
		오후 7:30			어린이영어1부	오전 9:00	비전센터1동(2F)
금 요	기도회	오후 9:00	광 성 홀	교 회 교	어린이영어2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00	광 성 홀		사랑어린이	오전 10:30	민들레(B1)
	저녁기도회(월~토)	오전 9:00	두손모아(B1)		사랑청소년	오전 10:30	비전홀(B1)
		오전 11:30	비전센터 3동		사랑청년	오전 9:00	비전홀(B1)
	외국인	오후 3:00	비전센터 3동		중 등 부	오전 9:00	지저스아트홀
주 일	베트남	오후 12:10	드림교육 1동	교 회 교	고 등 부	오전 9:00	드림교육 2동
	태국				드림청소년부	오전 9:00	삼트라방(드림학교)
	영어예배				청년부	오후 2:00	광 성 홀
		2/3부 [4층그레이트홀]					
		3/4부 [지저스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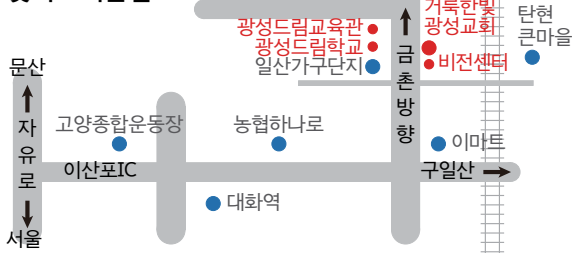
교육안내

새가족교육	주 일 오전 11:45	비전홀	생 활 신 앙	수요일 오전 11:30	
	주 일 오후 1:15			수요일 오후 7:30	해당교육실
알파코스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성 경 대 학	주 일 오후 2:00	
	주 일 오후 3:30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일대일 제자양육	매 일	해당교육실	목 자 제 자 훈 련	수요일 오후 7:30	해당교육실
노아스쿨	목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주 일 오후 2:00	
				수요일 오전 9:40	해당교육실

봉사기관안내

장터사회적협동조합	921-0691	작은교회전도지원센터	911-1324	사회복지법인해피월드	915-8817
광성평생교육원	929-3352	천사가게	911-2923	파주노인복지관	943-0730
북카페	929-3311	꿈치유센터	929-3343	문산종합사회복지관	934-2000
지혜모아	929-3354	두드림	929-3330	덕양노인종합복지관	969-7781
만나와매추라기	929-3340	한나래유치원	917-0551	원당종합사회복지관	966-4007
상담실	929-3333	광성드림학교	929-95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8-9801
아름머리방	929-3344	해피뱅크	924-8815	새꿈터지역아동센터	911-0611
올리브향기	929-3388	해피천사	918-7004		

찾아오시는길



교통편 안내

●자가용

자유로 이산포 IC 진입 → 고양종합운동장(직진)
→ 이마트 사거리(좌회전 후 금촌방향 1Km 직진)
→ 교회

●대중교통 (대화역 4번출구 버스승차, 송산동 하차)

일반버스: 56, 80, 567, 600, 773, 900
좌석버스: 1500, 2000, 3000, 5000

교회를 섬기는 이들

●사역총괄

김선호 목사

●교구관리

1교구(기획감사총비)	김선호 목사
2교구(통일선교)	주용진 목사
3교구(제2교육)	최종운 목사
4교구(중보기도회와선교)	장동훈 목사
5교구(사회선교)	박순원 목사
6교구(국내군경 제2한양)	송화준 목사
7교구(스포츠,전도)	이석희 목사
8교구(봉사)	우동진 목사
9교구(예배)	문상원 목사
10교구(제1교육)	박요한 목사
안식년	김광배 목사
	김영원 목사
	송기성 목사
	오현재 목사

유학

●행정

행정사역	김원중 전도사
목회비서	김종현 전도사
미디 어	최영민 전도사
	최성직 전도사
음향	김신영 간사
재무행정	최성이 전도사
사무간사	한수영 간사
관	박명옥 집사
	박성신 집사
야간경비	박대성 장로
	이정기 집사

●교육

제1교육 (교회학교)	박요한 목사
영아부	송문정 목사
유아부	유진숙 목사
유치부	김수경 목사
초등1부	이현주 목사
초등2부	조예스더 목사
초등3부	최성직 전도사
초등4부	김나단 전도사
초등5부	이윤선 목사
초등6부	유현애 전도사
어린이영어	김은하 목사
중등부	오성운 목사
	최호영 전도사
	최영민 전도사
	김환 전도사
고등부	김정준 목사
드림청소년	박요한 목사
청년부	김민석 전도사
	정상우 전도사
	박정훈 전도사
	신명혜 전도사
	최낙천 전도사
	최종운 목사
	성혜옥 목사
신혼부부	김형주 목사
직장사역	
노아스쿨	최형만 전도사

●선교 및 예배

세계선교	장동훈 목사
사회선교	박순원 목사
국내군경	송화준 목사
상담및치유	정정진 목사
광성영	윤성로 목사
태국	황경희 선교사
베트남	호아이 전도사
통일선교	노옥선 전도사
농민	이용보 목사
농도	이석희 목사
	김숙희 전도사
제1찬양	박성택 목사
제2찬양	송화준 목사

●협동사역

작은교회세우기	이석희 목사
성경연구소	김태섭 목사

정성진 위임목사 설교방송 CBS 방송설교 (시간 - 토요일 오후 1:30, 주일 오전 12:40)
굿TV (시간 - 금요일 오전 8:30, 주일 5:30) C채널 (시간 - 수요일 오후 4:00)
365일 24시간 위기상담 전화상담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 / 청소년 자살예방상담전화 : 1388



거룩한빛
운정교회

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목표

1. 섬기는 교회 2.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3.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비전

• 지역사회 문화중심 • 고양파주 성시본부
• 한국교회 개혁모델 • 북한선교 전초기지 • 세계선교 중심센터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사랑홀	교회 학교	영아부 (~36개월)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30	드림 2 (1F)
	2부예배	오전 9:30	사랑홀		유아·유치부 (37개월~7세)		드림 1 (1F)
	3부예배	오전 11:30	사랑홀		초등1부 (1~3학년)		비전 2 (4F)
					초등2부 (4~6학년)		비전 1 (4F)
	오후예배	오후 4:00	사랑홀		어와나 (7세~6학년)	오후 1:30	소망홀 (B2)
수요예배		오전 10:30	사랑홀		중등부	오전 9:30	믿음홀 (B1)
금요기도회		오후 9:00	사랑홀		고등부		소망홀 (B2)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사랑홀		청년부	예배 오전 11:30 모임 오후 12:50	사랑홀 (2F)

섬기는 이들

위임목사 정성진 목사	영 아 부 신지현 전도사	상 담 김형자 장 로
1 교 구 신평진 목사(중보, 봉사, 전도/선교)	유 아 유 치 부 이명숙 전도사	목회비서 김종현 전도사
2 교 구 김현철 목사(예배, 찬양)	초등1부(1-3) 정미현 전도사	재무행정 최성이 전도사
3 교 구 유정상 목사(사역총괄, 기획, 미디어, 자치회)	초등2부(4-6) 최종구 전도사(어와나)	음향간사 김금만 간 사
청 년 부 유누리 목사(교육총괄, 목회행정)	중 등 부 이도훈 전도사	관 리 채경희 집 사
새 가 족 박영옥 전도사	고 등 부 안도현 목 사	야간경비 최찬열 집 사

찾아오시는길

금촌 ▲	해솔, 가람마을 ▲		■ 산내마을6,8단지 52, 56, 66, 773, 1500, 9030, 9030-1, G7111, M7111, 080B(마을), 087(마을), 5600(공항)
	산내마을 1단지	산내마을 6단지 홍플러스 ●	공영주차장
◀ 헤이리	산내마을 2단지	거룩한빛 운정교회	■ 산내마을중심상가(중) 80, 2000
교하 ▼	산내마을 3단지	제2자유로 ▶	■ 운정교회 앞(산내마을1,6단지) 080A, 080B
	교하 ▼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19 SPRING VOL.36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36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정성진

발행일: 2019년 4월 7일

인쇄: 부건프로세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취재: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유동규

사진: 박혜준, 황의철, 김연철

교정: 강혜미

편집: 조혜리, 장예지

편집팀장: 전영의

-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 의료진 협진시스템
- ⊕ 건강검진센터 운영



든든한병원

진료내용

척추 관절 내과 검진 치과

[병원장 / 김진만 장로]

[일산가구공단 사거리] ☎ 1577-9177

일산서구 덕이지구(덕이동 1551)

www.15779177.co.kr

소중한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일산농협 탄현복지지점 개점

■ 개점기념 이벤트 ■

입출금 통장 개설 시 사은품 증정



일산 에듀포레푸르지오 상가 1층 영업중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00-1
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아파트 단지상가

문의 및 상담

031)916-8061



■ 본점 975-8061 ■ 동산지점 906-3234 ■ 산들지점 977-6540 ■ 마두역지점 903-6251 ■ 자유로지점 906-8161 ■ 양지지점 922-4381
■ 정발산역지점 908-8061 ■ 백석역지점 904-8061 ■ 탄현지점 912-8061 ■ 풍동지점 907-8071 ■ 강촌지점 932-8061 ■ 탄현복지점 916-8061
■ 영농자재센터 907-0252 ■ 로컬푸드직매장 동산점 906-3666 ■ 로컬푸드직매장 일산점 975-8322 ■ 로컬푸드직매장 장항점 907-8161